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전파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6월 2일 (토) 제 168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KAPC 42회 총회참석자들이 첫날 개회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총회장 김재열 목사, 부총회장 양수철 목사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2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 제 42회 총회가 지난 5월 22일 저녁부터 25일 오전까지 뉴욕 롱아일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21:15)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부총회장인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가 소속된 뉴욕남노회(노회장 이재덕 목사)가 호스트 했다.  
첫날 저녁 개회예배를 마치고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재열 목사(뉴욕남) △부총회장 양수철 목사(에버그린선교회 담임, 가수) △서기 권혁천 목사(북가주) △부서기 허윤준 목사(뉴욕) △회록서기 정광욱 목사(남가주) △부회록서기 김현수 목사(서남) △회계 김원도 장로(뉴욕) △부회계 김영식 장로(북가주).  
이번 총회에서는 KAPC 교단 역사상 흔치 않은 임원선거가 됐다. 공천부가 공천한 임원들을 총대들이 반대해 결국 전임 총회장들이 공천부 회의에 자문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종 확정결과를 냈다. 그 결과 부총회장과 서기가 바뀌게 됐다.

다. 이번 현상에 대해 노회장들이 젊은 층으로 교체되면서, 공천부가 총회 역사와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김재열 신임 총회장은 “목양사역을 잘 하는 것이 총회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책, 운동을 전개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기도를 당부했다.  
김 총회장은 또 “4차원 시대를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휩쓸려 복음이 식어가는 시대지만 4차원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며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정진해서 어찌하든 유익이 되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예배는 유재일 목사 인도로



총회장 김재열 목사



부총회장 양수철 목사

기도 최진목 목사(동남부), 성경봉독 황문영 목사(뉴잉), 찬양 뉴욕센트럴교회 찬양대, 설교 김재열 목사, 광고 최중현 목사, 축도 김경진 목사(캐나다)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내 어린양을 먹이라”(요21:15-23)라는 주제 설교에서 “개인적 소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 것인데 본문에서 주님이 세 번씩 하신 말씀은 목양사역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어떻게 잘 목양할 수 있는가? 첫째, 우선순위를 바꾸고 목양에 전념하라. 둘째, 더욱 겸손하라. 세 번씩 물으신 이유는 받은 직분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 셋째, 순교를 각오하라.”  
(3면으로 계속)

## 지구촌 또 다른 전쟁, 낙태 찬반 논란

미 언론, 아일랜드 낙태허용 법안통과-미 아이오와주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 법안명령 보도

전쟁은 칼과 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책임은 어떠한 물리적 전쟁보다도, 우선순위가 된다. 따라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 허용과 반대 논쟁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는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한 것이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산모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온 수정헌법 제8조는 폐지되고, 임신 12주이하는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반면, 지난 5월 초, 미 아이오와 주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을 의회가 통과시켰고, 주지사까지 서명을 마쳐, 대법원의 제동만 받지 않으면, 당장 7월 1일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한마디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임신 6주째부터 낙태 대부분이 금지되며, 미국내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될 것이다.

먼저 아일랜드 분위기부터 살펴보자.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한 것이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산모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온 수정헌법 제8조는 폐지되고, 임신 12주이하는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반면, 지난 5월 초 미국 아이오와 주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을 의회가 통과시켰고, 주지사까지 서명을 마쳐, 대법원의 제동만 받지 않으면, 당장 7월 1일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한마디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임신 6주째부터 낙태 대부분이 금지되며, 미국내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될 것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더블린성 앞에는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는 수천 명이 모여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민들은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외쳤다. 아일랜드 방송협회는 출구조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구조사를 결과,



지난 5월 4일, 낙태금지법안 시행에 김 레이놀즈 주지사가 서명하고 있다.  
18-24살의 87.6%가 낙태죄 폐지에 뜻을 모았고, 25-34살(84.6%), 35-49살(72.8%), 50-64살(63.7%) 집단에서도 폐지 의견이 다수였다. 65살 이상만 찬성이 41.3%로 반대를 밀었다.  
리오 베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조용한 혁명의 절정”이라며 “우리는 여성들을 믿고 그들이 올바른 결정,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낙태 시술을 한 여성을 최장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해외로 낙태를 하러 나갔고, 온라인에서 불법 약물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3년 산모 생

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됐으나, 허용 범위 확대 요구가 이어져왔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번 결정으로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가 기형이거나 산모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술 전 3일간 숙려 기간을 두고, 의료진의 신념에 따라 환자를 말지 않을 권리도 법안에 담겼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렘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mail@hotmail.com

	2면		7면		8면		16면
시론 김봉운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도 목사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인/터/뷰 원중권 목사	

## SEED ICMS 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 선교사 가정을 위한 ICMS2018

(SEED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대상: 선교사 후보와 안식년 선교사 및 가정  
장소: 캐나다 밴쿠버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 1J8 Canada

일자: 2018년 6월 25일(월) - 8월 3일(금)  
등록비: 일인당 \$1,500/ 자녀일인당 \$750 (6세이상)

ICMS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

SEED 선교회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Serving the Local Church) 선교사를 양육하여 (Equipping Missionary Workers)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Evangelizing Nations)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Disciplining National Workers) 하므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가진 북미주 자생 선교단체로 현재 37개국 140여가정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ICMS는 SEED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ICMS 2018에서는  
직장 휴가를 이용하여 Module 1,2,3 로 나누어 훈련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Module 1: 2주 (6월 25일 - 7월 8일)  
Module 2: 2주 (7월 9일 - 7월 22일)  
Module 3: 2주 (7월 23일 - 8월 3일)

### 프로그램

- 공동체 훈련 (Community Living)
- 선임 선교사 멘토링, 강의 및 workshop
- 예배와 말씀 묵상, 선교적 삶 나누기 (Missional life Journey)
- GLOCAL Community Service

### 주요강의

- ◎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Imitating Christ Life (M 1)  
그리스도의 성품  
십자가와 복음  
말씀과 기도  
영적 리더십/ 성령
- ◎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 Imitating Christ Ministries (M 2)  
사도행전 선교적 이슈  
영적전쟁 (Spiritual warfare)  
타문화 의사전달  
언어습득 훈련  
자기 진단과 회복
- ◎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 Imitating Christ Mission (M 3)  
선교학 및 선교 동향  
선교사 열전  
사역철학  
문화적 전략적 선교

자세한 안내는 국제본부 (www.seedtoday.org, seedintoffice@gmail.com, 미국 703-996-0717) 문의 바랍니다.



# 시론

## 소자 중에 하나도



김경문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어린이날이 없는 것은 일년 내내 어린이들을 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유아자들을 잘 보살피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미국에서도 종종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이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어린이들이 왜 실족하게 될까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크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이아이를 세워 놓고 크고자하면 작아져야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싸울 때 교인들이 싸울 때 특별히 중직자들이 싸울 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초신자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던 아이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죄짓는 것을 볼 때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약 네 오른 눈 손발이 범죄하거나 혀가 버리고 찍어버리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소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요절 암송지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 아이가 종이말을 따내 담배 피는 흉내를 내므로 나무라자 "며칠 전 광복동 거리에서 선생님이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흉내 내는 것이예요"라고 말했다 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헐뜯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부모는 자녀를 범죄자로 키우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므로 실족하게 됩니다. 2017년도 6월에 테네시에서 2살 난 아이가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되어서 7살 난 사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촌을 죽인 그 아이는 평생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야할까요? 두 살짜리가 쉽게 총을 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요? 전 미국제조협회 담당 의사였던 Nassar라는 의사는 어린 제조선수들과 여자들을 성추행한 일로 17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한 일들이 그만큼 어린 소녀들을 실족시키고 아픔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결려서 넘어지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맺들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10절).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 깔본다,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린이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분을 내시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언어적으로(verbal) 신체적으로(physical) 폭력을 당할 때 그 아이들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시당하며 자란 어린이들은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분노가 쌓여 폭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려서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자란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 역시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와 매를 맞으며 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가출 소녀들의 90%가 접촉결핍증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열두 번이라도 자녀들을 많이 안아 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성도들은 여자 어린이들을 남 성도들은 남자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그들의 교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은 어린이나 소외된 약자가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아파하고 우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 많이 아프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셋째는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절).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며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보면 어른들은 많이 모이는데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적습니다. 종교등부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전도와 신앙교육을 위해 야심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펜서라는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1000명의 성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0세전에 548명이 20-30세 사이에 337명이 30-40세 사이에 96명이 40-50세 사이가 15명 50세 이후는 5명이 각각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를 실족시키면 그 자녀를 영영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자살한 자녀들이 202명(고등140, 중등56, 초등6)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의 배후엔 그들을 실족시키고 업신여긴 어른들의 잘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들입니까? 이 글을 읽는 지금 우리 모두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pkim529@gmail.com

# 미국 백인들, 부유할수록 보수적 된다

## WP, 여러 연구자료 통해 백인들 경제적 소득과 정치성향 상관관계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정치의 계급에 관한 전통적인 통념을 뒤집어버린 사건이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부유한 상류층, 가진 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었으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서민층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소득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점점 권력을 빼앗기던 몰락하는 중산층의 분노를 정확히 짚어내 효과적으로 공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보다 평균 소득이 높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이

들도 저소득층 사이에서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를 향한 지지가 한마디로 예전 같지 않았다는 점은 대개 인정한다. 실제 카운티별로 유권자를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분류한 뒤 이들의 투표 결과를 분석해 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같은 사람을 1965년부터 1997년까지 30년 넘게 추적한 몇 안 되는 패널 연구 자료를 토대로 경제 계층의 장기적인 변화가 정치적인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직접 살펴봤다(White people get more conservative when they move up-not down-economically. Here's the evidence).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수집한 시기가 20세기 후반부였던 만큼 트럼프 현상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인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도 흔치 않는 생각이 될 정도로 뚜렷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1973-1982년에는 경제 성장은 정체되는데 몰락하는 계속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있었기에 자료로서 그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 정책 연설에 열광하는 백인 중산층 지지자들, WP

한 사회적인 시각도 전반적으로 보수화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뒤쳐진 이들이 보수화된다"는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1973-82년 10년 사이에 정부가 흑인을 비롯한 소수 집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패널 조사에서(100점 만점에) 11점이나 점수를 잃었다. 그만큼 이들을 향한 태도가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또한,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보다 범죄 자체를 막는 것이 더

## 가계소득감소, 지역경제 불황과 트럼프 지지율 상승과는 거의 무관 경제적 뒤쳐짐 소외감-민주당지지, 나은 경제 상황-공화당 약진세

가치가 더 컸다.

문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나타난 변화부터 살펴보자.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눈에 띄게 보수적으로 변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라도 소득이 오르지 않고 정체된 이들의 성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원래 부자가 더 보수적이고, 돈이 없으면 변화를 원하게 된다는 계급 정치의 전통적인 시각과 일치한다. 반면에 경제가 시원찮으면 집권 여당이 심판을 받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인기가 낮아진다는 시각은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

정치학자 다이애나 머츠가 2012년과 2016년 조사한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즉, 가계 소득이 줄어들거나 지역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과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실제로 중위 소득이 높은 곳에서 대체로 공화당 지지율이 높았다. 머츠는 "이른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뒤쳐진 이들의 불만이 쌓여 트럼프를 향한

폭발적인 지지로 이어졌다"는 가설(left-behind thesis)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머츠의 연구는 단 4년간의 데이터만 살펴본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세대를 거치며 일어나는 경제적 계층 이동의 영향력을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학자 켄트 제닝스와 동료들이 수행한 세대를 아우르는 패널 연구 자료를 살펴보기로 했다. 패널 연구는 196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 935명을 30년 넘게 추적했다. 강산이 세 번도 넘게 바뀌는 시간 동안 개인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에 따라 혹은 그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모두 꼼꼼히 기록했

다. 조사 대상인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65년은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전 국민의 소득이 고르게, 빠르게 높아지던 경제적 황금기 25년이 저물어가던 시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사회 초년생을 보낸 시절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소득 불평등이 다시 커지는 시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더 높은 소득 계층으로 이동한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 들어 낮은 소득 계층으로 편입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50세가 됐을 때 자신이 부모 세대가 50세였을 때보다 못 살게 됐다고 답한 이들이 16%,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다고 답한 이들이 47%였다.

그렇다면 경제 사정과 정치적인 태도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먼저 1970년대 경기 침체 시기를 보면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이 눈에 띄게 많아

지고, 인종이나 범죄 등에 관

중요하다는 주장은 17점이나 높아졌다.

그렇다면 누구의 태도와 견해가 바뀌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가계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난 이들의 견해가 가장 많이 보수화됐다. 즉, 경기 침체와 불황이 정치적인 불만이나 분노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를 이끄는 이들은 소득 계층이 높아지던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다양한 경제적인 주제에 걸쳐 대체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데, 대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친기업 성향을 보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거나(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것도 이들도다.

(5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b>편집국장: 유원정</b>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 2018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1. 목적:**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여, 재미 한인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2. 신청자격:**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서, 다음의 자격들을 모두 갖추고 계신 분 (본회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 1)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여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신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 하려는 학생에 한함.
- 2)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학위 과정)에 재학(在學)중인 학생에 한함.
- 3) 신학 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회(PCUSA)신학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 중에 있는 학생에 한함.
- 4)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3. 제출서류:** (특정 신청서 양식은 없음) 다음의 1, 2, 3 서류들을 모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의 이력서(연락할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 2) 신앙 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포부에 관한 진술서(한글 또는 영문으로 2 Pages)
- 3) 본인 또는 부모의 2017년도 연방소득세 1040, 또는 1040A, 또는 1040EZ사본
- 4) 추천서 2통 (1)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와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추천서 각 1통씩을 본회 사무실에 각각 직접 우송되어야 함.
- 5) 본인의 재학중인 학업 성적표를 본회 사무실에 학교 당국에서 직접 우송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 / 우편소인(消印) 마감:** 2018년 7월 31일까지(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장학금 내역:**

1) 주요남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 2,000)
2) 손철수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
3) 이민근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
4) 왕수복 장로 장학생	1명 (\$1,000)
5) 홍길두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
6) 김복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1,000)
7) 신봉생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1,000)
8) 크레브랜드 중앙장로교회 장학생	1명 (\$1,000)
9) 김득열 목사 장학생	1명 (\$1,000)
10) 김광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
11) 일반 장학생	

**6. 신청서 접수처:**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804 Nemoke Trail, Haslett, MI 48840 \*전화: (517)-743-5200

**7. 장학금 수여:** 2018년 8월 31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장학생에게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함)

2018년 5월 10일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김성택 목사    서기: 김중대 장로**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 www.mktimes.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18

**1. Purpose:**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and communities.

**2. Eligibility:**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s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Those who were awarded this scholarship previously are not eligible.)

- 1).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and community, and commits to serve their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 2).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 3). For theological studies, one who works for a degree of Master of Divinity at a theological seminary of PCUSA.
- 4). Who is a U.S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3.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The following 1, 2, 3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1)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The current address & telephone number included.)
- 2)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and vocational vision in Korean or in English in (2 pages).
- 3)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17 Federal Income Tax 1040, or 1040A, or 1040EZ.
- 4)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1) From the pastor of a Presbyterian church which one is affiliated; (2) from a faculty of the college or graduate school at which one has been studying.)
- 5) Official Transcripts of the college or graduate school of the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to the offic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4. Postmark Deadline:** July 31st, 2018 (All documents submitted shall not be returned.)

**5. Scholarships:**

1) 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2,000
2) The Elder Chul Soo Son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1,000
3) The Elder Min Keun Lee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1,000
4) The Elder Soo Bock Wang scholarship:	1 person	\$1,000
5) The Elder Gill 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1,000
6) The Kwonsa Bock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1,000
7) The Kwonsa Bong Saeng Shin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1,000
8) The Cleveland Central Presbyterian Church scholarship:	1 person	\$1,000
9) The Rev. Tukyul Andrew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1,000
10) The Elder Kwang Yul Kim memorial scholarship:	1 person	\$1,000
11) The General Scholarship		

**6. Mailing Address:**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48864 1804 Nemoke Trail, Haslett, MI 48840, Phone (517) 743-5200

**7. Scholarship Award Date:** August 31st, 2018  
(The awardees must send a letter of appreciation to the donor of the scholarship.)

May 10, 2018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President: Pastor Sung Taek Kim    Secretary Elder: Chong Dai Kim**  
\*More information of KAP Scholarship Fund may be found at www.mktimes.com

(1면에서 계속)

목회는 살아서 순교하는 것인데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순교자적 삶'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결론으로 "비교하지 말고 목회하라. 주님의 상급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퍼센트"라며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함독했다.

성찬예식은 김남수 목사 집례로 기도 김충환 목사, 성경봉독 이상만 목사, 설교 김남수 목사("성찬의 의의"), 축도 이근신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피터 릴백 총장이 방문해 학교 소개와 더불어 한국어목회학박사과정과 온라인 석사과정 오픈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진 회부처리에서 고시부 보고가 있었다.

이번 고시에는 20명이 지원해 19명이 합격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주환(브라질), Yu Jie Chen(뉴욕), 이형록 Joseph Lee(뉴욕남), 강석원(가주), 광길영(남가주), 김석남(캐나다), 김인광(중부), 김희태(뉴욕), 박승필 Joseph Park(필라), 박화중(뉴욕), 신동기(뉴욕), 이성기(수도), 이숙규(뉴욕), 전성호(뉴욕), 정지훈(캐나다), 정진호(필라), 한성욱(뉴욕서), 현종영(뉴욕남), 문대석(캐나다).

둘째 날인 23일 새벽기도회에는 예정합동 총회장 전계현 목사와 합동축사절단이 인사했다.

예배는 사회 김요섭 목사로 기도 이길호 목사, 성경봉독 권영국 목사, 설교 전계현 목사("사도 바울의 위대한 체험", 갈2:20), 축도 황은영 목사의 순서



KAPC 42회 총회에서 유재일 전 총회장이 신규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로 진행됐다.

이날 일정은 맨해튼 관광과 각종 운동으로 진행돼 회원들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예배는 총회 세계선교회(WMS)가 주관하는 "선교의 밤"이 총회장 김재일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열렸다.

집회를 통해 △김지문(중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재야 양문교회) △정성현(가미, 한국 캐나다, 시드 코리아) △안병찬(GMS 탄자니아 선교사, 캐나다 밴쿠버신학교) 선교사 등 3인을 파송했다.

예정합동 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가 "십자가와 선교"(고전1:18-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전인 총회장 유재일 목사가 "세계 선교회의 과거 현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셋째 날인 24일 새벽기도회는 김관중 목사 인도로 기도 이찬우 목사, 성경봉독 이종열 목사, 설교는 이계석 목사

(예정개혁 총회장)가 "바울의 거룩한 소원"(빌1:20-21)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고택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임사부 보고는 △총회행정명령시행법위는 총회가 결의한 행정명령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의 △총회장로협의 회 발족의 건은 유보 △총회 목사학적 자격고시 합격 후 1회기 후 안수 △동남아노회를 아시아 노회로의 명칭 변경 △와싱턴신학대학원을 서북미개혁신학대학원으로 교명 변경 △조지아 크리스찬대학을 조지아신학대학으로 교명 변경 허락 △인턴십과의 강단 교류는 제 36회 총회 결의대로 교류 금지 결정을 결정했다.

오후에는 퓨리탄리폼드신학교 조엘 비키 총장이 박성일 목사의 통역으로 "갈릴의 통합적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금년 NAPARC 총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이 호스트가 됐으며, 이번회기 의장은 박성일 목사가 선임됐

다.

저녁 예배는 예정합신 총회장 박삼열 목사가 설교했다. 예배는 허상회 목사 인도로, 기도 유윤호 목사, 성경봉독 석태희 목사, 설교 박삼열 목사("사도 속에 있었던 의식", 엡4:1-12) 축도 정관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감사 보고의 건에 따라 회계연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규척부는 '고시부와 신학부원은 목사 임직후 10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신학교 교장 및 교수 요원은 고시 부원이 될 수 없다' 등을 확인했다.

이어 총회장 김재일 목사가 폐회선언을 하고 폐회예배가 진행됐다. 총회장 김재일 목사의 사회로 기도 김상하 목사, 성경봉독 장덕상 목사, 설교 김재일 목사, 긴급기도(한동대학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축도 윤종호 목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총 교회수 509개, 담임목사 520명, 부목사 139명, 원로공로목사 30명, 선교사 및 기관 153명, 군목 27명, 무임 214명, 장로 574명, 세례교인 35,883명, 유아세례 5,213명 등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지난 41회기 총회의 수입과 지출 결산은 275,704달러였으며, 42회기 예산은 275,494달러다.

한편 이번 42회 총회 친선사절단으로 예정합동과 합신, 개혁, 고신 등의 총회장단과 임원단이 참석했으며 합동 GMS 이사진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 소망 칼럼

##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제자들, 헌신된 사람은 아니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즉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열 두 명만 택하여 제자를 삼으셨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라면 섬김과 봉사, 희생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무리를 향하여 제자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순한 무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삶을 이끄시도록 자신을 드러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토기와 순종을 요구하셨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얻는 것의 가치는 그 '기회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기회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재물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버릴 수 없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붙잡아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축복만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않은지 반성해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비용'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라. 내가 더욱 소중한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 시간, 재물, 쾌락, 호의호식을 포기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할 줄 아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위치를 바꾸기 바라다.

nammicj@hanmail.net

(1면에서 계속)

이는 또 가톨릭의 영향력 쇠퇴를 보여주는 결과로도 평가된다. 1983년 수정헌법 제8조 제정 당시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의 80%는 매주 미사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20%대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에서 우파 포퓰리즘이 급부상하는 시점에 아일랜드가 자유주의적 변화를 잇달아 쟁취했다고 분석했다. 2015년에는 62%의 지지를 받은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지난해 6월에는 성소수자인 버라드카가 총리가 됐다.

이번 결정은 다른 가톨릭 국가들을 포함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아이오와 주 낙태금지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를 알아보자.

소위 '하트비트(심장박동)' 법안에 따르면 낙태를 원하는 모든 여성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다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아이오와 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던 페넬길은 CBS 뉴스에 "우리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생명을 얻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면서, 동 법안 시행의 당위성을 말한다. 하지만 강간과 근친상간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될 예정이다.

따라서 CNN 등 미 언론은 이 법안을 '심장박동 청구서'라고 칭하며 미국에

서 가장 강력하고 제한적인 임신 중절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시행 여부에 따라서, 미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자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통 임신 6주가량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초음파 기계에 감지되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에 여성들은 스



26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발표되자,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

스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오와와 가족계획클리닉(Planned Parenthood)과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도 이 법안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가족계획클리닉의 공무부장 에린 데이비스-리피는 처음 새로운 낙태 법안이 논의된 이후 2월 발표된 온라인 성명에서 "낙태를 금지하려는 이러한 극

단적인 시도는 의학 및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사이의 상식과 여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인 '하트비트'법은 사실상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제껏 수십 년간 여성의 임신 및 낙태 권리를 위해 싸워온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성경강령체 단체인 비영리 연구기관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BBC에 "이는 미국 내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이오와 주와 미시시피 주와 캔자스 주를 포함해 낙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주 중 하나다.

정치 논평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금지를 지지하며 낙태 금지가 중

요한 문제임을 시사해 공화당이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관측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 법이 법원에서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법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으로,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아이오와 주의 '심장박동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연방대법원으로 가 기준 판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대법원은 1973년 기판비적인 '로 vs.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후 일부 주들이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시행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낙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려는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낙태 반대 의견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후보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바뀐에 따라 보수 진영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게다가 과거 낙태허용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81)이 올해 은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약한 대로 낙태 반대 성향의 대법관이 한 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9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 (M. Div) 김주현, 김현석, 김희태, 박화중, 심성희, 엄순애, 이현택, 전성호, 현종영, Yu Jie Chen
- 여교역학과 (Diploma) 김선화
- 신학부 (B.Th) 장수자, 최의화

#### 캐나다분교

- 목회학 석사 (M. Div) 김석남, 문대석, 제갈수미

일 시: 주후 2018년 6월 4일(월) 오후 7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 장 로 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 장 장 영 준 박사 이사장 김 성 국 박사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힘 있을 때 탐욕을 절제하라-세네카

로마와 나폴리 중간 지점에 위치한 포르미아(Formia)에 있는 스토의 철학자 키케로의 무덤을 찾다가 우연히 세네카(SenecaBC4-65AD)의 묘지가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네카라는 네로 황제의 멘토요, 로마의 위대한 스토의 철학자가 아닌가? 호기심이 일어나 그의 무덤을 찾기로 했다.

그는 히스파니아(현, 스페인)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로 유명했고, 형 갈리오(행18:12-17)는 바울과 만난 적이 있는 아가야의 총독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호기심이 더했다. 그는 어렸을 때 천식으로 시달렸고, 병을 고치기 위해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는 큰 어머니 집으로 갔다. 삼촌은 이집트의 주둔군 사령관 가이우스 갈레리우스였다. 어쩔 이리 가문이 좋을까 싶다.

그는 후에 로마로 돌아왔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폼피카로 추방을 당했으나 황제의 부인 아그리피나의 도움으로 49년에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50년에 집정관이 되었다.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근위대장인 브루스 등과 연합하여 권력의 집단을 이루었다. 그 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암살되자 아그리피나의 요청으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됨으로 권력의 최정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가 보필하는 동안 그의 충고를 경청한 어린 네로 황제는 원로원으로부터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충고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동서양이 비슷하다 싶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 같이 충고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한다. 심지어 쟁쟁한 미 대통령 케네디도 충고하는 보좌관에게 서류철을 집어던지기도 했더니 말이다.

현대에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향유했던 2000년 전이야 충고하

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네로 옆에 세네카를 보낸 것은 어머니 아그리피나(Agrippina)였다. 네로 황제는 처음에 세네카에게 아주 고분고분하였다. 그러나 20대에 들어서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네로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여야 했다.

자신을 전거한 아그리피나가 죽임을 당하고, 친위대장으로 있던 친구 브루스가 62년에 세상을 떠나자 세네카는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건강과 연로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네로에게 사직을 호소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세네카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정적들은 세네카가 피소의 음모에 가담했다고 고발함으로써 황제로부터 자살을 명령 받았다. 그리고 그 일로 탁월했던 친척 모두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죽음의 면전에서 철학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한다. 의연하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어쩌면 영문인지 그의 묘지가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에 있느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은 자주 찾아갔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기회를 보다가 토요일 오전에 그곳을 찾아갔다. 날씨도 맑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젓한 길을 걷거나 혹은 뛰고 있었다. 사진만 보고 찾는 일기에

갈 바를 모르고 무작정 걸어갔다. 인터넷에 실려 있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찾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동일한 모습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얼마나 반갑던지! 아피아 가도 양쪽에 아직도 남아 있는 무덤들 가운데는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은 텐데 여행자들을 위해 무덤의 주인과 그의 양력을 간단하게 표기한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싶다.

세네카에 놀란 점은 그는 역대 최고의 부자였다는 점이다. 요즘으로 6천억을 소유했다고 한다.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리타니아에 고을로 투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고을 이자를 받았고, 그 결과로 부디카 반란이 일어나는 동기가 되었으니 스토의 철학자의 면모로 볼 때 그의 철학과 삶의 현주소는 거리가 있다 하겠다. 고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런 사실을 비꼬기도 했다.

권력의 지근의 자리에 있었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막힌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권력의 내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었고, 외부로부터, 즉 권력에 잇대기를 원하는 재벌들로부터 오는 유혹들도 비일비재하였을 것이다. 얼마 전 법관들의 공직자재산신고 보고를 봤다. 어떤 판사는 2백억 가까운 재산을 신고하였으니 말이다. 부자집과 결혼하여 부를 물려받기도 했고요 아니면 특권을 통해 부를 증식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공무원 월급만으로 그 많은 재산을 증식하기란 불가능하



공상을 견디고 있 노라 많이 피곤한 모습이다. 사람들도 눈길한 번 주지 않고 있으니 세네카는 세월의 무상 앞에 잠시 쓸쓸했다 싶다. 거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분명 묘지의 주인에 대한 명패가 찬란하게 붙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조차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말이다. 마치 삶의 허무한 모습처럼....

그 많은 6천억의 재물은 어디로 갔을까? 큰 재산을 모을 때, 집을 잃고 땅을 빼앗긴 무수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텐데 말이다. 허무한 재물을 모으는데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대신 생계에 필절함이 없는 정도만 소유했다면 보다 많은 이웃들과 교제하며 수명을 다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힘 있을 때 탐욕을 절제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그 많은 재산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손을 크게 폈더라면 후일 까지 아름답게 그의 통 큰 선행이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무덤의 탑도 당시 생각이 옳다고 박수를 치는 것 같다. 그러나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한화영 목사**

(미 트리니티신학대학 대학원장/남가주웨슬리교회 원로)



우리 인간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자기를 존중해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남에게 존경 받는 위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위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는 위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복의 장' 신명기 28:1-14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성공하게

할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며 그럴 때에 궁극적으로 위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높은 이상과 성공의 가능성, 여러분의 꿈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높은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위자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은 가정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만일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성공했을 터인데, 만일 내 머리가 좋아서 일류대학을 나왔으면..." 만약

(IF)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성공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라고 적극적인 태도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위자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학도가 해부학을 연구하면서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사람처럼 신비한 구조가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고의 지혜 능력으로 이런 최고의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과 가능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자질을 한 번도 개발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요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가식을 취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실성을 떠나게 되므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허세와 허실 때문에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남의 눈치만 살피다가 자기 가능성을 파문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너무 지나친 열등

때문에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IQ도 낮고 좋은 학교도 못나왔고 훌륭한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점점 격하시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성격이 일그러지고 결국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남이 가지 못한 재능과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이 가능성을 개발할 때 여러분은 위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코 꼬리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셋째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위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위자리를 차지하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될 때에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안에 사는 사람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생각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새로운 창조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산업발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원 개발입니다. 인력자원, 지하자원, 해양자원을 개발해야 산업이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나를 위해 비어있는 위자리

(신명기 28:1-14)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기타지역 교회</h2>		<h3>갈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h3>몽고메리교회</h3> <p>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h3>벅스카운티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h3>벤엘교회</h3> <p>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친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Fax. (410) 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h3>보스턴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청년, 중년부: (주일) 오전 11:00, (월)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kinton, MA 01748</p>	<h3>살롯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청년, 청년, 중년부: (주일) 오전 10:45, (월) 오후 10:45</p> <p>Tel. (704) 877-6642, (704) 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h3>시애틀평강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 527-0981, Fax. (206) 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h3>안다옥교회</h3> <p>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929, Fax. (702) 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p>	<h3>알칸사 제자들교회</h3> <p>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501) 920-9049, 사택. (501) 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h3>앵커리지열린문교회</h3> <p>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9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h3>엘파소열린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 755-1490, 사택 (915) 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h3>영생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h3>킬린은누리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h3>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 941-4447, Fax. (703) 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h3>주 예수교회</h3> <p>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 560-7500, Fax. (804) 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h3>타코마 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예배: 오전 1시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 536-6675, (253) 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rc.com</p>	<h3>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927-0630, Fax. (215) 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교회설립 15주년을 지나면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었다. 은혜 가운데 6개월을 훈련한 후에 노회와 자체 고시를 치루고 이제 한 주간 후면 임직식을 거행하게 된다. 늘 임직을 앞두고는 직군의 장교들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때 사단 따위의 시험도 특별했던 기억들이 있다. 그래서 더욱 긴장하며 기도하고 있던 차에, 선배 목사님들이 다양한 조언들을 주신다. 그 가운데 '너무 믿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라'는 말이 복잡 분주한 이민목회 현장가운데 제일 와 닿는 듯 하다. 어찌 보면 들으나 마나할 듯 한 그런 말씀임에도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함을 털어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한다.

**하나님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

과연 믿을 것도, 실망할 것도 없는 일인가? 목회자의 부족함도 있겠으나 너무 많은 상처들을 주고 받는 탓에 조금은 달관이 된 듯하다.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처음 목사안수를 받을 때에는 엄청 눈물

고 복된 존재들이 될 것이다.

- 1. 언어조심-사실과 진실보다**  
교회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묵인하는 것도 중직의 자제가 아니다. 리더는 항상 옳고 바른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가 있다. 흔히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fact)인데 뭐가 잘못인가?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중직은 사실이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사실보다, 진실보다. 중직은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없는 지금 마귀의 최대 무기는 세치 혀가 뱀을 기억해야 한다. 덕을 세울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라.

- 2. 예배와 교회가 최우선이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길 원하신다. 예배에 실패함으로 삶에도 실패한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정해서 하는 일들은 그 마음의 선뜻 원함이 없을 지라도 중직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순종하며 교회의 형식적인 흐름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엄중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를 따르고 바라보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 큰일은 없다. 모두가 주님의 일이다. 요동치 않는 신중함으로 행해야 한다.

- 5. 집안에 우환 있는 얼굴 하지 마라**  
중직자의 얼굴은 항상 밝고 환해야 한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중직은 자기얼굴에 책임을 지는 위치이다. 자신의 문제하나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 매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중직은 교회에 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서라도 웃는 연습을 하고 와야 된다. 쇼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라

되어야 한다. 교회의 장로 권사가 되고서 검소함은 좋으나 인색함은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된다.

- 8.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다. '너는 교회하고 결혼했구나, 거기서 살아라.'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고 정성껏 돌아봤으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보았다. 교회가 정한 공적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바쁘다 핑계로 주의 전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큰 회개의 제목이 된다.  
또한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서 안수 받은 교회보다 연합회나 외부 활동에 더욱 열심을 낸다면 더 합당치 못할 것이다. 교회가 택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 받은 것이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신앙생활과 봉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집사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교회 안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심방 오셔서 설교와 격려 및 기도도 해주시는데 저의 영적 미성숙을 약간 책망하시는 투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섭섭하고 체면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봐도 이전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세리토스에서 K7

**A:** 좋은 질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말씀하시는 줄 알고 겸손이 잘 받아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겸손이 잘 받아야**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책망하기도 힘들고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사는 책망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려면 대개 목사자신부터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한 후 책망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늘 좋은 격려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가끔 따끔한 책망도 잘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그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일개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 겸손히 왕좌에서 내려와 "내가 범죄했다"며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나라 지도자들의 범주가 이사야 30장 10절에 잘 나오는데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되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선견자들의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히브리어 칼라코데, 아첨의 말)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칭찬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책망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평안의 메시지만 좋아하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치료에는 효험이 있습니다. 쓰지만 잘 받아먹어야 몸에 좋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언제 목회하기가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바른 말을 잘 받으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목회자가 작은 책망이라도 하면 발끈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목회에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LA에서 목회하셨던 변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의 어떤 집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윤리적인 문제를 조용히 책망하고 빨리 칭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이 뭘때 남의 사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면서 문을 차고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때 그 목사님은 "아아, 이 사람은 책망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판단하고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답인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교회에 세우셨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기도 받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 시험이 되었다면 스스로 내 영혼을 향해 엄하게 책망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지역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열 가지 당부

도 흘렸을 것인데,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어려움에 눈물 짓다보니, 세상의 사람들과 외양 다를 바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하물며 평신도 직분자들일까.

저들의 일탈도 너무나 크게 눈에 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영혼의 목자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건만, 양의 머리에서도 뿔이 날 수 있는지 목회자의 목회철학에까지 시비를 걸거나 교회와 예배의 거룩함을 자신의 눈높이로 제단하려는 모습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복잡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가르쳐 본다. 비록 실망시키고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 하여도, 그 저 은혜에 기쁨 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짐 시키고 또 다짐을 시켜 본다. 나름 실패하면서 생각을 세우는 열 가지 중직을 정리해서 마치 거룩한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제발 잘해야 된다'는 권면에 권면을 거듭해서 전달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지역교회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전체에 간부장교들을 세우는 것이기에 이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세상 앞에 건강한 복음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에서도 선명한 빛을 드러내고, 분명한 잔잔함을 보여주는 소금이여야 한다. 과거 광주 상무대 보병 소대장을 만드는 초급간부훈련소를 가보면 구호가 멋있다. '나를 따르라'이다. 장교는 앞장서서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작전과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전투단위의 선봉장들이다.

교회에서 임직자들은 구역장 이상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구역단위의 그룹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부흥은 말할 수 없다. 더불어 이들은 그 나이나 연륜이 세상 앞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접어들어야 할 존재들이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잔소리하며 다짐해왔던 6개월의 여정이 아마도 겨우 열 가지일 같지만, 이것만이라도 순복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하

로 드리지 못하는 실패하는 복 없는 인생이 교회 중직이 되어, 망하는 인생길을 간다고 할 때, 교회는 어찌되었는가?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 않겠나?  
본 교회는 사업에 바쁘고 분주해서 공예배 기도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도순서에 넣는다. 물론 참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분이 대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교회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배도 가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종을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즘은 세상일이 바쁘면 당연히 교회일은 뒷전인 것처럼 판단해서 행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자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 3. 세 가지 말을 하지 말라**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신앙 떨어진 성도가 하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한다.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하기 싫어요.' 세 마디이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탓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에도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육신과 영혼이 병이 들어 가는 증거이다. 영육 간에 강건해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주의 사명보다 더 바쁜 일이 무엇일까? 기도함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질서 있는 삶을 통해, 선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요청하면 '노멘'이 없어야 한다.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이면생활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이해해서,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는 소리로 잘 못한다고 한다. 헌신에 대한 요청은 더 먼 이야기일 것이다. 그 결과 교회도 예배도 쇠해지고, 성도들의 삶은 필멸하고 교회는 생기를 잃게 될 것이다. 과연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

- 4. 어른스러워야 한다.**  
교회의 중직자는 어른이다. 그래서 앞선 리더는 당연히 어른스러워야 한다.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행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어른스러움이란, 어린아이와 같이

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을 더하시지 않겠는가?

나는 목사로서 강단에 오르기 전에 웃는 연습을 해본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서고 싶어서이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바 되어지고, 내 노란 성질이 드러나 설교가 망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목사는 목사 얼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권사 장로도 성경이 원하는 그런 얼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면 정말 스테판같이 천사의 얼굴을 한 장로 권사 목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 6. 영적질서를 세워라**  
임직자들은 결정권을 가질 때가 많다. 그때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과연 이것이 영적으로 잘되는 길인가? 어느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영혼이 잘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이기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장로의 직을 받고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떠나 이주하는 경우를 본다.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로는 복음을 위한 이유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입술로는 '이 교회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죽을 결심 없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듯 산다면 그는 차라리 장로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본 교회는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님은 시무장로가 되지 못한다.

- 7. 물질의 지갑을 열고, 인색하지 마라**  
중직은 과소비와 허식을 가져서도 안되겠지만 인색함에 매여서도 안된다. 일년이 다가도록 그저 담임목사 심방 한번으로 끝나도록 해서 안된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집을 오픈하고 섬김의 손이 부지런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중직이다. 한국의 교회문화일 수 있지만, 장로님 기정의 병장고는 늘 열려있었다. 언제라도 밥 달라고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장로님 가정의 넉넉함이 그리운 시대가 된 것이다. 자주 밥을 살 수 있는 중직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세상에 대해서도 여유롭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직분자가

**9.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라**

3대가 교회에 충성하는 가문을 이루어보라. 이제 한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가문의 호칭이 바뀌어진다. 부인은 장로매, 장로남매 자체를, 장로님 손자들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가문의 영광이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악한 것에 혼용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세상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으로 하나님 교회의 직분이 등장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분은 전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장로가 그럴 수 있는냐?'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엄청난 손해를 보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죽지 않겠는가?

**10. 새벽을 깨워라**

본 교회는 임직자를 선출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새벽기도 출석여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를 거두러 아침마다 나가갔듯이, 주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며 중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담임목회자와 한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때, 주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할 때, 교회의 최고 갈등이 되는 중직자와 목회자와의 문제는 쉬 해결될 것이다. 비록 섭섭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장로님은 주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 용서받을 것이다. 마음에 쌓아두어 폭발하기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 목회자와 중직, 그들은 분명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상당히 주관적인 경험과 교훈들을 통해서 중직자 교육의 마지막 시간에 강조한 내용들이다. 6개월의 공부를 다 읽어버린다면 이것만 기억하여도 좋은 직분자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믿으며 가르쳤던 내용들이다. 이 시대를 볼 때, 너무 과한 요구인가?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davidnjon@yahoo.com

**(2면에서 계속)**

이 결과는 지지 정당, 대학 교육 여부, 인종, 성별 등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된 뒤에도 여전히 나타났다. 당시 로버트 쿠르티 기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경기 침체 시기에 나타난 큰 정부를 향한 반감은 알고 보니 가진 자들의 반감이었다."

이어 1982-1997년,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심해졌고, 보수화 경향도 다소 누그러지거나 진보적으로 돌아선 경우도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누가 진보적으로 변했을까?  
대부분 전체 평균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은 이들이었다. (부익부 빈익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새로운 도금 시대(New Gilded Age) 첫 15년간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정치적 성향 차이는 벌어진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 사정 변화도 지지 정당과 정당 소속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1973-1982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백인들이 공화당 지지자가 될 확률이 18% 높아졌다. 반대로 같은 기간 실질 소득이 줄어든 백인들이 스스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힐 확률은 1%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이어 1982-1997년, 공화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정체됐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백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할 확률은 12%나 높아졌다. 반면 소득이 정체됐거나 오히려 줄어든 이들 사이에서는 공화당 지지세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조사 마지막 해인 1997년 제닝스는 30년 넘게 조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경제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즉, 부모 세대가 50세였을 때와 자신의 지금 모습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이었다.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살게 됐다고 답한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2년간 33%나 낮아졌다. 반대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못 살게 됐다고 답한 백인들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율은 32년간 고작 4% 높아지는 데 그쳤다.  
경제적으로 뒤쳐지고 소외됐다고 느낀 사람들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뒤쳐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였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 이들 사이에서 공화당의 약진은 훨씬 더 두드러졌다.  
물론 20년간 계속된 저성장장 경제 불평등 심화로 경제적으로 뒤쳐진 이들에게 보수 포퓰리즘이 잘 먹혔을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시골에 사는 백인 노동자 가운데는 자신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을 공무원, 이민자, 무슬림, 도시에 사는 좌파 엘리트주의자들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말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외부인과 낯선 이들을 문화적인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치적인 전략은 경제가 좋은 나쁜은 관계없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후난(HUNANESE, 한족)



전 2백만 이상의 후난 한족은 중국 내 민족 중 가장 큰 한족 다음으로 큰 집단이다. 그들은 주로 모택동(Mao Ze-dong)의 고향인 후난 지방에 거주하는데 이곳은 3월 공산주의 항쟁의 주 무대이기도 했다. 또한 광저우 지방과 타이완에도 상당수의 후난 한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후난의 주요 방언인 치양(Xiang)어를 사용한다. 후난 한족은 외국세력에 맞선 오

랜 저항의 역사로 유명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복음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 공산국가가 되기 전 중국에 살았던 선교사들은 외국의 영향에 대해 닫힌 이 지방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후난 한족의 기독교인은 1.9%에 불과하다. 이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는 계속됐고 시골 지역에서 더욱 심했다. 기독교 박해는 문화혁명 기간에 최고조를 이루었고 잦은 체포와 구타, 심한 중상 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위협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삶의 모습

중국은 오랜 역사동안 여러 정치적 격변과 불화를 겪어왔다.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해 나라를 단일화했을 때 중국 전역에서는 찬동의 물결이 일어났다. 중국인으로써 또한 공산주의 환경 아래에 살면서, 후난 한족은 오직 한명의 자녀만을 가질 수 있는 중국법에 복종해야 한다. 단 시골 농부의 첫째가 여아일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산아 제한법은 한족 사이에서 낙태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런 법률이 꼭 고통을 준 것만은 아니다. 다른 여러 법률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0년 급작스런 인구 증가로 생겨난 대량 기아 사태는 약 3천5백만 중국인을 죽임으로 내몰았다.

후난 한족은 지방 수도 중 가장 대표적인 '장샤(Changsha)'에 대다

수가 거주한다. 이는 현대 도시의 중심이고 산업, 교육, 고속 발달, 부의 중심지다. 정부가 그곳 사람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자유가 허락됐고 이 자유가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후난 지방의 날씨는 열대 우림지역으로 4월에서 6월까지 폭우가 쏟아진다. 여름은 건조하고 온도가 화씨 80도까지 올라간다. 겨울은 짧고 산악 지역만 낮은 온도를 보인다. 산과 언덕은 다른 지방 사람들이 찾을 만한 관광지다. 양쯔강은 가장 중요한 강이고 지역의 접경을 이룬다.

산악과 언덕지대에는 주로 농촌 생활을 하는 후난 한족들이 쌀, 밀, 차, 다른 과일과 야채들을 재배할 만한 비옥한 계곡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후난 한족들 가운데 농사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점

차 소비중심 국가로 변해가면서 경공업과 중공업도 또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난 한족중 적어도 75%는 농촌 지역에서 살고 농경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성공의 기회를 쫓는 젊은 세대들의 변화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모택동의 의복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구세대(舊世代)와 달리 서양의 의복 스타일을 받아들인 젊은 세대는 서양의 사고방식에도 개방적이다. 공산주의 경제방식에 환멸을 느낀 젊은 층은 현재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기회들을 찾고 있다. 1989년 여름에 있었던 학생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해 후난의 수도 '장샤(Changsha)'에는 대규모로 학생 동요가 일어났다.

후난 한족은 공산주의이지만 여전히 중국 문화 속에 뿌리 깊은 유교사상의 잔재가 있다. 또한 불교, 도교, 이슬람, 기타 다른 민속 종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후난 한족의 영적인 필요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성장을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 사실상 수천만 후난 한족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통해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며 복음에 더욱 열려지게 될 것이다.

신앙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내 다양한 전망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다양한 전망과 주론을 내놓았다.



제임스 클라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7일 CNN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며 "위싱턴DC와 평양에 각각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걸 포함해 '정기적인 대화의 통로'를 개설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번의 회담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는 취지다.

비판 나랑 MIT대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정상회담 의제를 다루는 실무팀장으로 투입된 것에 주목했다. 나랑 교수는 "성 김의 기용은 정상회담 준비를 트위터 같은 공개적인 공간이 아니라 막후 전문가들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이것이 회담을 진전시키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만 낙관적이지 않다"고 경계했다. 그는 CBS방송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불과 몇 달 전에 미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들이 갑자기 비핵화를 한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대 1 회담을 하는 게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진짜 위험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BC방송에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하는 것은 미국의 침공 위협을 낮추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생전 유언 공개

"어떠한 위협이나 희생이 있더라도 복음을 지켜내야 한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 하거라."



지난 2월 21일 하늘나라로 떠난 '위대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유언장은 그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진솔한 신앙고백 같았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가족을 향한 사랑, 신에 대한 감사와 겸손까지 녹아 있었다.

그레이엄 목사의 고향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지역 방송국 WSOC는 최근 그가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다. 그는 가족을 향한 유언 첫머리에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긴다"는 신앙고백으로 운을 폈다. 이어 "주님을 위한 사역은 내게 커다란 기쁨이었다"면서 "나는 종종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와 손주들을 향한 당부부 이어갔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속죄함을 얻은 축복의 교리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했다. 아울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덧붙였다.

100년을 살다간 그는 "지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면서 추억을 더듬었다.

"농장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 어제일 같고, 네 엄마와 첫 데이트를 한 것도 어제 같구나. 달빛 가득

한 밤에 결혼식을 올린 것도 어제 같고, 네 엄마로부터 첫아이를 가졌다는 편지를 읽은 것도 어제 일어난 일 같아." 특히 그레이엄 목사는 자신의 인생을 헌신과 사랑, 믿음과 희생으로 채운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는 2007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레이엄 목사는 "내가 (지난 삶의) 일들을 잘해냈는지 여부는 그리스도 심판의 보좌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최근 복음주의에 기반을 둔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복음을 지켜내라'는 아버지 유지를 따르는 사역으로도 일한다.

2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는 2주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디시전 아메리카(Decision America)' 집회를 열고 있다. 예 비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집회인데, 보수 기독교 성향이 짙다. 그레이엄 목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같은 명칭을 내걸고 50개주 순회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집회에서 "캘리포니아에 뿌리 내린 세속 가치에 맞서 싸우자. 예수를 위해 투표하고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기독교 가치를 강조하면서 복음주의권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복음 전파 대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그레이엄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반포 성경 3860만부 중 20%는 온라인으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가 지난해 전 세계에 전달한 성경 중 20%가 온라인을 통해 반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서공회는 24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17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성경전서 3860만부가 반포됐고, 이 가운데 790만권이 웹사이트나 '유버전(YouVersion)' 같은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됐다"고 밝혔다. UBS가 성경 다운로드를 별도로 집계한 것은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성경반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반포된 성경의 44%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경전서와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총 3억5400만여부의 성경이 반포됐다. 전체적으로 성경 반포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세계 분쟁 지역 등 다양한 곳에 성경이 전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남수단엔 2013년 12월 내전 시작 이래 25만권 넘는 성경이 전해졌다. 2011년 분쟁이 발생한 시리아의 경우, 지난해에만 20만권이 반포되는 등 꾸준히 성경이 전달되고 있다.

"성경 택한 아버지, 보코하람이 살해"

"앞에 성경과 코란이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보코하람 조직원). "나는 성경을 택하겠다"(데이비드 세건 목사의 아버지). 보코하람 조직원들은 세건 목사 아버지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댕겼다. 미 기독교인론 크리스천포스트는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보코하



람의 박해로 아버지를 잃은 현지 목회자의 신앙고백을 최근 보도했다.

미시간 주 홀랜드에 살고 있는 세건 목사 부부. 나이지리아 출신인 이들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남부 지역에 살던 세건 목사 가족은 수년 전 북부로 사역지를 옮겼다. 남부를 떠나 북부에서 사역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종교인구 분포상 남부엔 기독교인이, 북부엔 무슬림이 많다. 북부로 사역지를 옮긴 세건 목사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등의 사역을 활발하게 펼쳤다. 무슬림이 많은 동네인 테라 세건 목사의 사역이 현지 보고하람 조직에 알려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보고하람 조직원들이 세건 목사의 집을 급습했다. 당시 세건 목사 가족은 콘퍼런스 참석차 집을 비운 상태였고 그의 부모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세건 목사의 어머니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아버지는 미처 피하지 못했다. 세건 목사의 행방을 묻는 조직원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교회에 갔다고 답했다. 교회에서도 세건 목사를 찾지 못하자 조직원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북부를 살해했다.

다시 세건 목사의 아버지 앞에 선 조직원들이 성경과 코란을 앞에 두고 물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세건 목사의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상황은 현지 마을 주민과 내통하는 보고하람 조직원들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 이후 세건 목사 가족은 18년의 현지 사역을 뒤로한 채 미국으로 향했다. 세건 목사 가족은 텍사스와 시카고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미시간 주 홀랜드에 정착했다.

세건 목사는 "보고하람은 나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도 없다"며 "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는 나에게 더 강해지라고 가르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박해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의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세건 목사 부부는 현재 정신병원에 취업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고 있다.

세계구세군 새 대장에 브라이언 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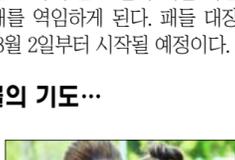
세계구세군 제21대 대장으로 브라이언 패들(사진) 사관이 선출됐다고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이 28일 밝혔다. 국제본부 사관들과 세계 각국 사령관, 여성사역 총재 등 108명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런던 구세군국제본부에서 세계구세군 대장 선출을 위한 구세군 최고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과 최선희 여성사역 총재가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패들 대장은 캐나다 구세군 사관으로 세계구세군 참모총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다. 세계여성사역 서기관으로 사역하고 있던 그의 부인 로잘리 패들 사관은 세계여성사역 총재를 역임하게 된다. 패들 대장의 공식 업무는 오는 8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쿠바 교회, 눈물의 기도...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카를로스 샌즈(쿠바나사렛교회) 메소아메리카 지역 담당) 목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승객 113명을 태운 보잉 737기가 지난 18일쿠바 수도 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 사망자 110명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권 교단인 쿠바나사렛교회 소속 목회자 부부 10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2일 미 기독교인론인 크리스체너티투데이와 나사렛 교단 뉴스 등에 따르면 노르마 나일스 목사 등 목회자 부부 20명은 사흘 일정으로 아바나에서 열린

교단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쿠바 동북부의 울진 지역 출신인 이들 사망자 중에는 교단 선교회 지역 책임자와 비서, 회계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쿠바나사렛교회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목회자 부부들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었다"고 전했다. 이들 사망자는 8-17세 사이의 자녀 8명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성인이 된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레오넬 로페즈(쿠바나사렛교회) 총회장은 "이렇게 깊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또 함께 이 상황을 헤쳐 나가자고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틴복음주의연맹(AEL)은 성명을 내고 "나사렛교회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로 숨진 이들의 유족들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다"고 애도했다.

쿠바에서는 정부와 교회간 충돌과 갈등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세계기독교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몰수 및 파괴, 목회자 구금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16년에만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몰수됐다. 하지만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 11월 사망했을 당시 기독교 인구가 5% 이상이었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는 보도했다.

'여게인 1973' F. 그레이엄 2020년 초창상회

한국교회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가 47년 만에 재현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던 당시 대회에는 5일



간 110만명이 모이며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했다.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칭)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조찬 기도회를 열고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를 대회장으로 선임했다. 기도회에는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국동방송 이사장) 김선도(광림교회) 박선희(소망교회) 임인식(노량진교회) 목사 등 73년 당시 전도대회에 참석했던 원로들과 고명진(수원중앙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목사, 기독교인 대표, 청년·여성·군선교 사역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73년 대회에서 통역을 맡았던 김장환 목사는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듣고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음에도 내게 건넨 첫마디가 '한국에서 전도 집회 한 번 더 하자'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 2의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기 지퍼지도록 발판을 마련하자"면서 "이 목사를 대회장으로 선임하고 준비위원회 조직 등 향후 활동을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심부름꾼으로서 집회를 준비하고 '진정한 하나 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대화의 장이 이어지고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 시기에 한국교회에 하나 되어 복음통일을 이뤄가자"고 덧붙였다.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아시아총괄디렉터 채드 해몬드 목사는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선 7만 3000여명이 참석해 1만여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전도대회를 기쁘게 회상하는 것처럼 2020년 열릴 페스티벌이 40년 후에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부산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최홍준(부산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는 "당시 개최 2년 전부터 부산 기독교계가 초고파적으로 단합해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을 치렀다"며 "2020년 보여줄 한국교회의 연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 후 열린 준비위 모임에서는 2020년 5월 또는 10월 중 서울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 확보 및 위원회 조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2일 회의를 열어 조직을 확정할 뒤 같은 달 30일 교단장회의에서 각 교단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고 언급하였다. 십자가에 대한 교훈은 역설적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지혜를,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믿고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능력으로 채워진 삶을 살게 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자 영원한 구원의 표상이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을 영위한다.

서방 세계가 야만족의 이동과 그 후에 따르는 정치적인 혼동을 겪는 과정을 겪은 후, 중세 교회의 특징적 모습을 갖추어갔다. 이때 중세시대 교회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십자가는 그들에게 3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는, 중세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목상하며 그를 닮은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이다. 두 번째는, 스킨 신학의 발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군 운동이 전개되면서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전투적인 삶을 세상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중세교회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중, 중세 수도원 운동과 신학 연구는 초대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중세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이전부터 내려오던 교회의 전통이란 토양에서 배양된 것들이었다.

이슬람의 칼

그러나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운동은 중세교회가 낳은 매우 독특한 산물이다. 십자군 운동은 십자가를 앞세워 적군과 대결하며 전쟁을 치렀던 군사 활동이다. 서방 교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기독교가 이슬람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구상하고 실행하였다.

7세기에 이슬람교 시대가 시작된 후 그들은 유일신 알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신앙적 신념을 내세워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들은 출발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전쟁을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였다. 즉, 그들의 손에 주어진 칼은 상대를 약탈하고 죽이는 성스러운 도구였다. 정복한 지역의 부녀자들은 노예로 삼는 것도 당연시 하였다.

모하메드는 추종자들을 다음의 말로 충동하였다. “칼은 천국과 지공의 열쇠이다. 알라를 위하여 흘린 피 한 방울은, 무장한 채 지새운 하룻밤이나 금식과 기도로 보낸 두 달보다 더 효험이 있다. 누구든지 전도에 나가면 죄 사함을 얻는다. 심판 날에 팔 다리 대신 천사들과 그룹들의 날개를 선사받게 될 것이다.”

이슬람의 무력 사용은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던 기독교의 선교 방법과 대조를 이뤘다. 기독교인들은 상대를 십자가 복음으로 설득하고 변종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을 다하였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를 잔멸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박해와 순교의 위협을 이겨내야만 했던 역사를 지닌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이슬람의 근본 사상을 수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슬람교의 정복 역사는 우리와 친숙한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과 이미 동방 교회가 자리를 잡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험한 군사훈련을 잘 이겨낸 뒤 훌륭한 전사로서

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동방 교회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설명한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동방 교회에 대하여 서방 교회도 어느 정도 측은하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서방교회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을 침범한 이슬람 계통의 무어족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로마가 그들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즉, 서방 교회도 이슬람의 존재

십자군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십자군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지녔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군사적 순례'는 칼을 앞세워 이슬람의 잔악성에 비교할 때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전쟁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내세워서 상대를 점령하기 위해 출병한 십자군들은 상대를 죽여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했다.

수도사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는 '거룩한 전쟁'을 치루는 성도가 상대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에, 상대의 칼에 의하여 죽음을 죽기 전에 상대를 분명하게 죽여야 하다고 피력하였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은 정당하다는 선언은 그 당시 십자가를 앞세웠던 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

무슨 동기로?

서방 교회는 십자군 운동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 직접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 당시 직접 통치하던 황제들과 왕들이 자신들이 거느리는 군대를 이끌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대수도원장들과 고위 성직자 그리고 사제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싸웠다. 십자군 전쟁은 분명 서방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1096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운동은, 성지 탈환과 이슬람 개종이란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시작되었다. 전쟁에 임한 자들은 자신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들이 앞세운 십자가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십자군 운동에 대한 시선이 그토록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일부 역사가들이 십자군 운동을 중세 교회의 가장 커다란 수치라고 역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군 운동은 1291년까지 계속되었다.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2세기 동안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다. 각 운동의 성격과 목적, 십자군들의 구성과 인원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점차 처음에 지녔던 순수한 동기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없었던 각종 범법자들이 십자군에 가입하였다. 결국 십자군 운동이 이슬람의 잔인성에 뒤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로마가톨릭교회가 강조하였던 행위를 통한 영적 보상을 누리기 위하여 전쟁에 임하기도 하였다. 도리어 그들은 전쟁을 치루는 과정과 현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동방으로 진출하여 부를 누리려는 자들이 그 대열에 끼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십자군들은 전쟁에 임하는 목적조차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분을 망각한 그들의 손에 십자가가 들려있었다. 물론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자 영원한 구원의 표상이 아니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였다.

covenantcho@yahoo.com

#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2)

##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자 영원한 구원의 표상 십자가 교리 아닌 실제로 믿으면 능력으로 채워진 삶 살아

### 1096년 십자군운동 시작은 성지 탈환과 이슬람 개종 목적 2세기 동안 지나며 범법자 가입, 십자가 상징 의미 사라져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영예스런 일로 간주 하였던 자들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방도가 없었다. 결국 이슬람들은 팔레스타인, 이집트, 시리아를 정복함으로써, 초대교회의 흔적 위에 자신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

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십자군 운동은 그 당시 서방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648년부터 이슬람의 손에 들어간 예루살렘 방문과 순례의 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에 대한 동경,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반드시 상황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1세기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울 때 살인은 정당화된다. 성경은 '거룩한 전쟁'에서 상대

다. 초기부터 동방교회의 교구 역할을 담당 하였던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북 아프리카 지방에 속해있던 교회들이 이슬람의 무력에 의하여 힘없이 파괴되었다. 초대교회 시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모습보다 더욱 잔인한 방법과 막강한 군사력은 동원하여, 마치 건조한 시기의 걸잡을 수 없는 산발처럼 확산되는 이슬람의 세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거룩한 전쟁

중세 교회의 십자군 운동을 시작하게 한 것은 이슬람의 세력이다. 서방 교회는 정

무슬림의 세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장시간에 걸친 전쟁이 지속되게 한 것이다. 물론 극히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다.

결국 중세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십자군 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십자군 운동을 이슬람이 추구하였던 '거룩한 전쟁'에 대항하였던 '기독교적 거룩한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교회는 십자군 운동을 '군사적 순례'로 이해하였다.

군사적 순례

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하여 죄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이미 초대교회 어거스틴에 의하여 완성된 이론이다. 그는 평화를 도모하는 자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랑을 동기로 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2세기에 시토 수도원을 창립하고 2차 십자군 원정시 설교를 하였던 클레브로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1090-1153)는 '거룩한 전쟁'의 과정에서 상대를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죄로 여기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버나드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목상하는 경건한

## 종교 칼럼니스트 언론인 아르케 처치 사역자

# “강만원 선생 강연회 및 청중 토론회”

### 강연제목 교회란 무엇인가?

1. 교회의 유래와 정의
2. 교회와 목사
3. 교회의 능력

-성공관 대학교 불문학, 프랑스 아미앵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담론분석학, 텍스트 분석학, 문체론 전공).

-종교, 철학 칼럼리스트.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등 다수의 저서와, 역서로는 <신이 된 예수> (현대 프랑스 종교철학, 역사학의 대학자 프레데릭 르느와르 원저), <자연법의 신학적 의미> 등이 있음. 또한 사제와 목사의 성직주의에 맞서서 성경적인 원형교회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일시: 2018년 6월 2일(토) 저녁 6시 (조출한 저녁과 함께 시작)
- 장소: 3130 Wilshire Blvd. #303 LA., CA 90010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 빌딩 (At. Shatto Pl.)

### <교회 개혁을 위한 포럼>

# “한국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무엇을 개혁하여야 하는가?”

## 패널리스트들의 발표와 토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 패널리스트

1. 김영철 장로 - 한인교회정화운동협의회 대표
2. 강만원 선생 - 언론인, 종교 칼럼니스트, 성경적인 원형교회 운동사역자
3. 이상명 목사 -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신약학전공 Ph.D (클레어몬트 신학대)
4. 장 열 기자 - 언론인 중앙일보 사회부, 종교담당 기자

- 일시: 2018년 4월 4일(월) 저녁 7시 (조출한 저녁과 함께 시작)
- 장소: 3130 Wilshire Blvd. #303 LA., CA 90010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 빌딩 (At. Shatto Pl.)

주최/주관: 한인교회정화운동협의회, 아르케처치 운동협의회

후 원: 뉴스 & 조이, News M,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 코랄레움선교합창단(지휘 이경원), 성악가 이사효, 피아니스트 김하나

행사 문의: (213)200-7000

# 성경도 신앙 (52) 국가, 정치, 교회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라) 청교도들이 추구하던 '언덕 위의 도시'를 향한 사명

원스롭은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다.

"기독교 형제애에 기초하여 봉사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길에 축복을 명하실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전에 본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권세와 선하심과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열매로 "이스라엘의 한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베새다는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들이 나온 곳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공동체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취급할 때 공동체로 다루시는 것처럼, 원스롭은 거룩한 공동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죄악도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 바) 공동체의 수호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룩한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의 공격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언덕 위의 도시'를 허무는

로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인 기독교 사랑의 실천, 거룩한 공동체의 실현, 진리의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4. 새로운 나라 이념의 실현

잉글랜드의 신학자들은 아담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정부를 세우셨으므로 백성은 통치자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개인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청교도들은 이런 영국의 정치사상에 칼빈주의적 언약사상을 연합시킴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사상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통치

## 원스롭, 기독교사랑 실천, 거룩한 공동체 실현, 진리 유지되는 사회 추구 영국 정치사상에 칼빈주의적 언약사상 연합시켜 새 형태의 정치사상 확립

님이 우리 사이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열 명이 천 명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칭찬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계속 정복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뉴잉글랜드에 주신 축복으로 만들 것이며,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 만민의 눈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원스롭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 마) 공동체 중심 사상의 성경적 근거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공동체 중심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심판하실 때 소돔에서 의인 열 명만 발견한다면 그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창18:32), 이는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심판의 대상은 죄인들만 아니라 뜻과 같은 의인(벧후 2:7-8)도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다(수7:1). 아간이 개인적으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과 베새다를 향하여 "내가 네게 행한 것들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내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힘들리라"고 하셨다(마11:21-24).

사단의 주된 공격 수단은 무엇보다 분리주의와 죄의 범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분리주의자는 언젠가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차피 충돌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 식민지를 수백 개의 작은 단위로 만들 수 있으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분리주의자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 원스롭은 "모든 이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므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거짓으로 대하지 말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책임을 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물론 여기서 거짓으로 대한다는 것은 분리주의를 의미한다. 동료들에게는 "뉴잉글랜드에 도착하면 세상이나 죄에 빠지지 말자"고 충고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성향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해 허황된 것을 구하면 확실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를 발하실 것이며, 맹세를 깬 백성에게 복수할 것이며, 언약을 깨는 값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했다.

원스롭은 죄악의 범람과 분리주의자의 확산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고, 이를 억제함으로써 영국과 유럽을 선도할 수 있는 '언덕위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였다. 원스롭은 이상적인 사회가 그의 비전에서 세 가지 근본적이고 사

자와 백성의 관계를 언약관계로 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지 않고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원스롭은 1645년 매사추세츠 주의회에서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와 우리와 맺은 맹세"라고 언급하였다.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백성과 통치자, 백성과 백성 사이의 상호 언약인 법이 필요하다. 청교도들은 법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하여금 뉴잉글랜드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는데, 이 법은 인간의 이성이나 로마 천주교회에서 작성한 교회법과 달리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은 신학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의 강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완전한 규율이 되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분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계시된 성경을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의 흐름 속에서 청교도들은 성경에 기초한 법을 제정하여 상호 언약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1)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자

교회와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성경에 기초한 법을 제정하여 건강한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보스턴의 청

교도들과는 달리,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자들은 정치와 종교의 전적인 분리를 주장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플리머스에서는 1651년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법이 아니라 행정 관료들이 모든 업무를 관장했다. 주지사와 소수의 보좌관의 뜻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고 이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플리머스에 거주하거나 이주할 수조차 없었다. 행정 관료들에게 입법권만 아니라 사법, 행정 등의 권세가 주어져서 삼권 분립이 어려웠고,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교회와 정부가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접촉점이 없던 두 기관은 서로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결정했고, 교회가 정부를 충고할 만한 장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행정 관료의 뜻에 따라 모든 행정이 운영되는 바람에 목사는 공공 정책을 수행하는 일이나 교회와 관련된 법을 만들 때마져도 참여할 수 없었다.

### 2) 보스턴의 청교도

(가) 국가와 교회의 상호협력 체제였다

보스턴 청교도들은 국가와 교회가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중요한 정치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목사들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였다. 이런 일은 1635년 3월 매사추세츠 정부가 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 윈스롭과 리처드 벨링햄(Richard Bellingham)에게 1630년 이후 제정된 법들을 재심하여 차기 입법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을 때부터였다. 뉴잉글랜드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합당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636년이 될 때까지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자, 주 정부는 존 코튼(John Cotton), 피터 휴(Peter Hug)와 토머스 셰퍼드(Thomas Shepard) 목사를 임명하여 이들을 돕도록 하였으며, 1638년에 나다니엘 워드(Nathaniel Ward) 목사를 추가로 지명하여 헌법을 초안하도록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 율법 폐지는쟁으로 사회가 혼란하였을 때 1644년 행정 관료의 부자 사이에 갈등이 있자, 주정부는 여러 명의 목사를 초청하여 도움을 구하였다. 주지사와 보좌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사추세츠 정부는 목사들에게 선거 설교를 요청하였고 목사들은 설교를 통하여 목회적인 충고를 함으로 상호협력력을 유지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방법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질환 중 하나가 암이다. 암 환자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치료 방법이 없어 암이 발병할 경우 사망했던 과거와 달리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외과적 치료 등 불과 20여 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것이 치료방법의 발달로 인해서 암이 완치되지 않더라도 꾸준한 치료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암과 싸워 나가는 환자들을 자주 본다.

또한 암 조기 발견, 스크린 방법이 다양한 임상연구를 근거로 암 종류별로 나와 있고 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상당히 높아져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뿐 아니라 암이 진행된 상태라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잘하면 정복할 수 있는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기에 발견할 방법도 없고 진단된 후에도 수술해서 완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췌장암은 그 빈도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췌장암을 두려워하지만 아직까지 조기 검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인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을 예로 들어보자. 폐암은 가슴 엑스레이 사진이나 CT사진에 나타날 수 있는데 1기의 경우 수술하면 생존율이 90퍼센트에 육박한다.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위암도 마찬가지다. 내시경 검사로 조기 발견되는 경우 생존율이 90퍼센트고 대장암이나 직장암모두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 치료를 받으면 90퍼센트 가까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췌장암은 앞에서 말했듯이 조기 검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CT촬영을 하면 췌장암이 종양이 보일 수 있지만 그 크기가 작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췌장암을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 췌장암 지표로 흔히 쓰이는 혈중 CA19-9수치는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데 이 수치도 암이 아닌 환자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CA19-9 수치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췌장암은 흡연자에서 발병이 많고 과거에 만성 췌장염을 앓은 경우에도 빈도가 증가한다. 당뇨병과 췌장암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이유는 췌장암에 걸리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췌장암 환자의 다수는 만성 췌장염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췌장의 만성 염증이 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진단이 내려질 때는 대부분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췌장암의 진단방법 다음 회에 계속)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춘 신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온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1.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여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M.Div. 학위 취득자
3. 목회경력: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 (미국 목회 3년이상 경험자)
4.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5.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 2. 구비서류

1. 이력서
2. 목회 철학과 비전 및 이민 목회의 사명 소견서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2편-5편의 설교 동영상
6. 목회자 2명의 추천서

### 3. 제출마감일

2018년 6월 15일  
제출처: oc1newpastor@gmail.com

### 4. 기타사항

1.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DF or WORD)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oc1 church  
OC1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교회부흥과 성장... '올바른 믿음생활 갖기 실천운동 모임'에서 "교회를 자랑하는 건지?...

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듣고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건지?...

가 있고 등으로 바뀌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목사나 교회를 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교육...

같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전도를 한다는 교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교회 건물, 시설자랑, 목사자랑, 행사와 이벤트 자랑, 교육프로그램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데이비드 오우어(David Owuor) 박사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고 예언하면서, 한국교회와 교인이 회개해야 할 10가지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1)음란과 동성애 (2)낙태 (3)자위행위 (4)거짓말에 대한 성적, 도덕적 타락 (5)붉은 약마를 동원해서 교회에서 응원한 것 (6)하나님과 풍요함(돈)을 더불어 섬긴 것 (7)세상과 타협하며 목회자가 성결치 못한 (8)교인 수 줄까봐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음 (9)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메시지지만 전함 (10)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세속화되고, 목회자의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명예와 감투,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세상과 타협하여 기복신앙적인 변질된 복음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대회를 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빌3:8)하므로,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가문, 혈통, 명예, 권세, 학문, 물질 등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빌3:8)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만 전했습니다. 70년대에 한국교회가 24배나 성장했지만, 지난 10년간 기독교 인구가 14만명이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보고를 접하면서, 교인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한 교회 대형화에 안주하지 말고, 그 대형화 이전에는 매년 수백, 수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전도가 교회 성장과 부흥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풀러신학교가 포모나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풀러의 비전을 설명하는 총장 마크 래버튼박사와 코리안 센터 원장 김창환교수.

70년 역사 풀러신학교 포모나로 이전

건축 3년 예상, 패사디나 매각...기자회견서 밝혀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가 패사디나 캠퍼스를 떠나 포모나로 이전한다. 지난 22일 풀러신학교는 마크 래버튼 박사와 코리안센터 원장 김창환 교수를 비롯,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풀러신학교 이전과 관련, 신학교 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소개했다. 마크 래버튼 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반도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스도

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마크 래버튼 총장은 "현재 풀러신학교의 이사진들과 함께 각 교회와 사회의 일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 70년 역사를 가진 패사디나 캠퍼스에서 그동안 각 나라로 사역자를 파송하는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풀러의 진취적인 새로운 거듭남을 계획하고 있다. 포모나 시대를 열며 전통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위해 최첨단의 시설과 행정을 갖게 될 것이고 학위과정, 영적 형성 경험, 전문적 수료과정 및 학습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장할

것이며 포모나로 완전히 이전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모나 이전으로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30명 정도의 작은 그룹들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포모나는 현대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최상의 지역으로 한인신학생은 물론 다인종 학생들을 유입하기에 가장 좋은 요지로 조성될 것이고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모나 풀러신학교는 6월부터 신학교 건립착공에 들어가 3년 동안 건축될 것이며 현재 패사디나 캠퍼스는 개인적이나 기관을 통해서 매각할 것인데 윤리적인 적합성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매입자에게 찾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신학교마다 한인 신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으로 신학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풀러신학교는 지난 7월 코리안센터(원장 김창환 교수)를 오픈하고 KDMing, MAICS, ThMICS, DMinGM, DMiss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과정 재학생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자세한 것은 풀러 웹사이트(www.fuller.edu)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필라안디옥교회 2018년도 단기선교 파송식에서 참가자들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총 24개 선교팀 457명 파송...MOVE 비전 실현

필라안디옥교회 2018년도 단기선교 파송식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는 5월 20일 오전 11시 OICC 예배(One in Christ Church, 가족예배) 때 2018년도 단기선교 파송 예배가 진행됐다. 총 24개의 선교팀(국내 및 해외 선교 14개 팀과 지금, 여기서부터의 선교인 Here and Now 10개 팀)에서 457명이 선교에 동참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후 24개 선교팀이 출정식을 하기 위해 강대상으로 입장

했다. 임장 후에는 선교팀 대표인 박장준 집사의 선서와 함께 단기선교 부장이 유언장을 호성기 담임목사에게 전달하는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선교팀들이 선교에 임하는 각오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호성기 목사의 파송기도 후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English ministry, Hispanic ministry, Korean ministry)은 각자의 언어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선교팀들을 파송했다. 이날 파송예배에는 선교지로 가는 457명과 그리고 '가는 선교'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을 결단한 143명까지 총 600여명이 참석해 안디옥교회의 MOVE 비전이 실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 선교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고, 열매 맺는 선교가 되길 기도했다. 필라 안디옥교회의 24개 선교팀이 파송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꼬만, 과테말라 케찰 테낭고, 멕시코 유카탄 VBS, 멕시코 유카탄 의료, 멕시코 Oaxaca, 멕시코 Guerrero, 웨일즈 VBS, 웨일즈 Youth, 아리조나 나바호, 인도네시아, 폴란드&이스라엘, 프랑스노몽족, 한국 대구 영어 VBS, 한국 평택대, 뉴저지 하이티, 필라 도심선교, 그웨니 너싱, 요크 너싱, 샌디힐, 히스패닉, 어퍼다비, 한국학교, 평생 시니어선교대학,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학 (기사제공: 필라 안디옥교회)



에피포도 출판기념 및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세번째 대표 백승철목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술 하라"

에피포도 제11집 출판기념 및 제21회 예술상 시상식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 이하 에피포도)는 26일 로텍스 호텔에서 제 11집 에피포도 문학과 예술 출판 기념식과 함께 제 21회 에피포도 예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이성숙 수필가의 인도로 드러낸 예배는 이인미 시인 기도, 헬렌리 사모 찬양, 이태종 목사(베트남선교사)의 설교, 윤일흠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태종 목사는 '결정적 순간'(창

49:22)이란 제목으로 "요셉이 삶의 담을 넘을 수 있던 비결은 샘 곁에,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었다. 우리의 삶속에서도 때로는 높은 담, 인생의 겨울을 지난다 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시인은 결정적 기도, 헬렌리 사모 찬양, 이태종 목사(베트남선교사)의 설교, 윤일흠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태종 목사는 '결정적 순간'(창

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백승철 목사는 "기독교단체에서 제정된 예술상 문학상이 가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 것처럼 크리스천 작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글을 쓰고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술을 하면 그 작품에서 진실성이 묻어나고 감동을 주며 사람을 대하는 편견이 없어진다"고 크리스천 문학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설명한 후 "신영 시인의 시어 속에 는 섬세함과 따스함이 배어 있었고 오석환 시인의 글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김동수 시인은 삶의 무게를 시어로 잘 다음어 표현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날 축사는 오소미 박사, 방동섭 목사가 맡았으며 오소미, 석정희, 전은실, 오석환 시인의 시낭송이 있었다. 한편 에피포도에서는 제 22회 에피포도예술상 공모를 진행 중이며 마감은 8월 30일까지다. 자세한 것은 (714)907-743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SEED ICMS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을 위한 ICMS2018 (SEED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대 상: 선교사 후보와 안식년 선교사 및 가정 장 소: 캐나다 밴쿠버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 1B8 Canada. 일 자: 2018년 6월 25일(월) - 8월 3일(금) 등록비: 일인당 \$1,500/ 자녀일인당 \$750 (6세이상)

시드선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6월 25일-8월 3일 캐나다 밴쿠버훈련원에서

시드선교회(국제대표 권영복 목사)에서 개최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Seed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이하 ICMS)가 오는 6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ICTC 훈련원에서 개최돼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전력한다. 본 선교사학교는 선교사 후보와 안식년 선교사 및 가정이 참여할 수 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순종과 겸손의 훈련을 받게 되며, 영성을 가진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십자가와 복음,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지도력을 위해 성경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를 연구하며 함께 공부하게 된다. 또한 타 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들의 강의를 통해 강한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팀 사역과 타문화의 이해와 실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된다. 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반태호, 장현철, 김영진, 이인호, 박신일 목사들의 강의와 고이원상 목사의 DVD 강의가 준비된다. 이 외에도 예배와 개인기도 40일 큐티 묵상 등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로 거듭나는 훈련의 장을 마련했다. (이성자 기자)

한편 ICMS 2018에서는 직장 휴가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Module 1(6월25일-7월8일), Module 2(7월9일-7월22일), Module 3(7월23일-8월3일)으로 준비했다. 시드선교회는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양육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므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가진 북미주 자생 선교단체로 현재 37개국 140여가정이 사역하고 있다. ICMS는 Seed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 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seedtoday.org 에서 볼 수 있으며 seedintoffice@gmail.com이나 (703)996-0717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최소 1만명 이상 투표 참가해야

한미연합회, 방글라데시 우편투표방법 설명 기자회견

한미연합회(사무국장방준영)는 월셔센터-코리안타운 주민의회를 '방글라데시 주민의회'로 분할하려는 구획안의 우편투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25일 실시했다. 방준영 KAC사무국장은 "방글라데시로부터 한인 타운을 지키기 위해 최소 1만 명 이상의 한인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지만 아직 참가자가 부족하다"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인 타운 비거주민의 경우 자주 찾는 업소의 영수증을 최소 4개 이상 지참해 투표장에 가는

것이 좋다"며 "투표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사진이 있는 신분증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갖고 가라"고 조언했다. 지난 21일부터 한인회, KAC, 대형마켓 앞에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획안' 우편투표에 유권자 등록을 한 주민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있다. 투표지는 구획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노란색 용지와 투표지를 넣어 LA시 선거구에 발송하는 파란색 봉투로 구성돼 있다. 먼저 우편 투표 유권자는 노란색

투표지를 읽고 자신의 의견에 검은 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채우면 된다. 이때 'X'나 'V'로 표시하면 무효다. 질문은 '월셔센터-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획 제안에 찬성하십니까?(Are you in favor of the Wilshire Center-Little Bangladesh Neighborhood Council subdivision proposal?)'이다. 리틀 방글라데시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할 경우 '아니오(No)'에 동그라미를 채우면 된다. 당초 한인타운 비거주민의 경우 '이해당사자 주소(Stakeholders Address)'란에 주소,등록시 등락 시 했던 회사 주소나 즐겨 찾는 업소의 주소를 써야 했다. (11면으로 계속)

# 동부교계 기사판



##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미나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종대 목사) 세미나가 6월 18일(월)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양순관에서 “목회자와 여성사역자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오전 강의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 “이민교회 여성도와 여성사역자의 위치와 역할” 오후 강의는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담임, “선교적 교회와 여성 리더십”).

▲문의: (917)386-8852

## 양병희 목사 뉴욕집회

서울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뉴욕집회가 △6월 1일(금)-3일(주) 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3일 오후 5시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 설립 2주년 감사예배 △4일(월) 오전 8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금강산 연합회) △6일(수) 오후 8시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준길 목사)로 열린다.

▲문의: (917)936-9356 김경열 목사

# “목회 & 목회력” 주제...강사 김홍석 목사

## 뉴욕목사회 세미나 및 스코틀랜드 탐방 3차 기도회



뉴욕목사회 세미나 및 스코틀랜드 탐방 3차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회 & 목회력”이라는 주제로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24일 호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강사는 천환 목사(인천예일교회 담임)였으나 천 목사는 자신보다 더 세미나를 잘 인도할 강사로 김홍석 목사(안양일심교회 담임)를 소개했다.

김홍석 목사는 필라에서 이민교회를 개척하고 6-7년 시무한 바 있다며 잠인 27장 23절을 인용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소떼에게 두라”고 조언했다.

또 “목회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라며 조중사의 비행과 연결해 “(1)기장(목사)가 가장 중요하다 (2)관계망(하나님)과 항상 교신하라 (3)조력자와 함께 목회까지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 성장은 목사 혼자만

이 영향력이 아니고 중간리더십(장로, 권사)과 교회의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를 가로막는 요인을 치우기 위해서 목사는 (1)강단권 (2)인사권 (3)재정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최선을 다하는 목회, 장점으로 승부하는 목회”를 강조하며 자신의 저서 “행복한 사역자”의 내용을 소개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스코틀랜드 탐방 3차 기도회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합심기도했으며 김정숙 목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2부 세미나는 이희선 목사 사회로 문석호 목사가 강사소개를 하고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박시훈 목사 광고 후 문석호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문석호 목사는 “목사회를 출발하면서 회원 목회자들의 영적, 지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많이 계획했다”며 앞으로 있을 세미나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욕목사회는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탐방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 뉴욕교협 연합체육대회 중단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이 매년 메모리얼 데이에 주최해오던 연합체육대회가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됐다.

뉴욕교협은 지난 5월 25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교협 연합체육대회가 청소년들의 배구대회가 주 종목이었는데, 청소년들의 배우운동이 시간이 지나며 선호하지 않는 운동 종목으로 되면서 올해 교협 체육대회에 신청하는

교회가 2교회 밖에 없는 관계로’ 올해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래도 적극 홍보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같은 추세는 미주 한민교회 전반적인 추세로 청소년들의 다른 연합 경기도 취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이승만기념사업회 제 14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이승만기념사업회 새 뉴욕지회장 김명옥 목사 제14차 정기총회 “나라사랑 정신 받들어 나가겠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지난 5월 24일 오전 제 14차 정기총회를 열고 부회장 김명옥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부회장으로 송병기 목사를 영입했다.

프라스교회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전임 회장 안창의 목사는 2년의 임기를 통해 사무총장 현영갑 목사를 강사로 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사” 세미나를 계속했으며, 차세대 청소년을 위한 이승만 아카데미와 이승만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내외가 참가한 가운데 미주총회와 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김명옥 목사는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받들어 나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명옥 목사(뉴욕예은교회 담임)는 뉴욕기독교인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소속교단인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회장이자,

총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김명옥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호 장로, 말씀봉독(스8:21-23) 이찬우 안수집사, 설교 한재홍 목사(“기도의 힘”), 헌금기도 박태규 목사, 축도 송병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현영갑 목사 사회로 국민 의례 후 안창의 목사의 인사말, 축사 정순원 목사, 흥중학 회장, 축가 김영환 전도사로 진행됐으며 3부 총회로 이어졌다.

(정라: 유원정 기자)

#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앞서 야외음악회

## “천국 함께 갑시다” 김성국 목사 메시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오는 6월 2일 선교 바자회를 한 주 앞두고 지난 26일 저녁 7시 본 교회 파크에서 야외음악회를 열었다.

“아름다운 음악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교후원음악회”라는 주제를 걸고 열린 야외 음악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김성국 목사가 10분 메시지를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전했다.

김 목사는 히브리서 11장 13-14절을 본문으로 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지금 프랭클린 애브뉴와 바운 스트리트 코너에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며 “한국이나 중국,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우리는 모두 이

곳의 나그네로,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 천국으로 가지”고 역설했다.

음악회는 오인수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돼 그레이스 선교무용단과 솔라미 선교무용단의 무용과 색소폰 연주(홍승룡 장로), 솔로찬양(송창호 장로) 등으로 이어졌다.

파크라트 환경에서는 음식류와 의류, 장신구류 등 선교바자회를 소개하는 물품들이 전시돼 참석할 주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퀸즈장로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2회의 선교바자회를 통해 여러 단기선교와 각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과테말라 단기선교 10월 1-5일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5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퀸즈소방교회(담임 정바울 김사라 목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18년 단기선교 준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정순원 목사, 합심기도, 축도 정바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 자문위원)는 “변함없는 감사”(시 136: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아대책기구의 뉴욕 발족모임을 추억하며, “기아대책이 날로 새롭게 발전해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구제사역과 복음사역을 확장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 “첫째,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릴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앞서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역설했다.

2부 회부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 기도 후 전희수 목사가 사역보고를 하고, 이찬양 선교사가 광고했으며, 박진하 목사의 폐회기도 및 진교 기도도 마쳤다.

2018년 하반기 사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선교 △일시-10월 1-5일 △장소-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 △사역내용-결연아동 방문, 애프터스쿨 방문, 부부막/화장실 마무리 공사(가구당 700달러), 교실증축현장 방문 ▲후원자의 밤: 11월 25일.

이날 회의에서는 웹사이트(breadngospel.org)에 사역 홍보 및 사역진행 보고를 알리며, 선교단원 모집과 부부막/화장실 후원 내용을 영상과 문서로 제작해 활용할 것을 결의했다.

6월 월례모임은 27일(수) 오전 10시30분 새소망성리교회(담임 박이스라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할렘 노숙자/저소득층 방문행사를 마치고 세 단체 봉사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후원 야외음악회에서 그레이스 선교무용단이 부채춤을 추고 있다.

# 2기 3명 수료식...미동부로 사역확대

## 뉴욕나눔의집, CITS와 전인치유 리더교육

뉴욕나눔의집(GMAA, 대표 박성원 목사)과 한국의 기독교국제재민주 학교(CITS, 대표 김도형 목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 2기 전인치유 리더교육 수료식이 5월 24일 오후 2시 뉴욕나눔의집에서 열렸다.

GMAA 대표 박성원 목사는 “이번에 수료자는 3명이지만 지난 1기 수료자들과 함께 총 7명이 강의 들었다”며 “9월에 오픈하는 3기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게 된다. 뉴욕 뿐 아니라 뉴저지, 필라로 지역을 확대해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전인치유 사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료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찬양 박진수 전도사, 기도 이광모 장로, 특송 수료자들, 설교 김길홍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GMAA 후원이사장 김길홍 목사는 “일어나라”(눅7:11-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관 속에 누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며,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과 교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수료자들도 주님의 한 마디 ‘일어나라’는 호소, 명령, 권고의 말씀

을 듣고 일어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수료식은 이번 교육의 강사인 최정미 박사(CITS 부대표) 사회로 진행됐다. 최 박사는 수료자들에게 “나이가 들었지만 남은 여생을 다이아몬드같이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또 최 박사는 자신이 교육하러 왔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간다며, 수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수료자 3명 중 한명인 윤덕인 목사는 “받은 교육을 잘 활용해서 필요한 분들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기 수료자지만 이번에도 강의 들은 이종수 씨는 “이런 강의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해야 하는 강의”라며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영호 장로(뉴욕장로협의회 회장)의 축사와 케익커팅, 김영환 전도사의 특송이 있었으며 이종명 목사의 마침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세 단체 협업 할렘 노숙자/저소득층 방문

## 이노비, 뉴저지초대교회, 브니엘선교회

문화복지 비영리 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뉴저지 초대교회 기관 사역부와 함께 5월 22일 오후 12시 30분, 할렘에 위치한 소울세이빙 스테이션을 찾아가 할렘지역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무료식사 및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세 단체가 협업을 했는데, 브니엘 선교회(대표 김명희 전도사)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고 있는 봉사모임에 뉴저지 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주민들을 위한 점심 식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이노비는 무료 공연을 준비해 할렘지역 저소득층/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감동의 음악회를 선

사했다.

이번 공연에는 버클리 음대 출신의 실력과 재즈피아니스트 황시원 씨가 음악감독을 맡아 진행한다. 그 외에도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즈싱어 최은영과 재즈베이스리스트 강환수, 그리고 기타에 트윈마이가 참여했다.

브니엘선교회 김명희 전도사는 “오늘 더욱 감동 깊은 콘서트 진행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했다”며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것 같다”고 공연 소감을 전했다.

▲이노비 연락처: happiness@EnoB.org, (212)239-4438 (기사제공: 이노비)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합평교육원 2기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심기도하고 있다

###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 김학송 선교사 비전50선교회 감사예배

지난 1년 동안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김학송 선교사의 귀환을 감사하는 예배가 25일 로스앤젤레스연합감리교회(담임 신병국 목사)에서 열렸다.

그동안 김학송 선교회를 지원해 온 비전50선교회(회장 윤일흠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 선교사는 북한에서의 억류 율인과 과정,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그를 비롯해서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등 억류됐던 세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데리고 나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다.

김학송 선교사는 “작년 5월 6일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도중에 체포됐다. 체포된 때만 해도 왜 체포됐는지 몰랐다. 당시에는 그곳이 어딘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보아서 구치소였다”며 “가자마자 나를 책상 앞에 앉혀놓고 큰 선생이라고 불리는 보안서의 높은 간부가 ‘김학송, 너를 반공화국 범죄행위로 체포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데려갔는데, 그날은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왜 체포됐는지를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포된 이튿날부터 조사가 시작돼 70일 동안 조사를 하는데, 70일간의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왜 데려왔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욥3:11) 하는 욥의 기도나 나의 기도였다”고 김 선교사는 고백했다.

그는 “체포된 지 70일이 됐을 때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한 번에 1천보씩 하루에 한 보씩 걸으면서 시편 126편과 욥기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눅18:7-8)를 외우면서 기도했다. 기도하면 신심이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낙심도 되고 했다”고 말하며 “북경에서 10년 목회를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사역이 우선이었던 그것을 보여주셨다.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내 마음이 보였다. 그래서 회개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역 중심, 남들에게 보이려는



김학송 선교사

것,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이 죄 때문임’을 고백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5월 9일이 되자, 북한 관계자들이 나갈 준비하라고 했다. 담당 선생이, ‘조선인민공화국 몇 조항에 의해서 김학송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의해서 추방한다’고 선언했다. 그때가 저녁 7시 반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만둘 수 있었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성경말씀을 자주 묵상했다. 나도 이틀처럼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드린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일이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감옥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나는 밖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옥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마틴루터 킹 목사 서거50주년 기념음악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는 기독교 믿음 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삼고 모셔 준 마틴루터와 마틴루터킹 주니어를 주제로 하는 마틴루터 킹 목사 서거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6월 10일(주) 오후 5시에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캄보디아 국제크리스천 음악캠프 선교지원을 위해 베델 성극팀, 케노시스 중창단, 앙상블 크리스트와 성악가 Richard Zeller가 펼치는 연극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이다.

▲문의: (213)700-7813 박정영 전도사

### OC제일장로교회 창조과학세미나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는 창조과학세미나를 6월 3일(주) 오후 12시30분 본 교회 비전센터 예배실에서 갖는다. 강사는 이재만 선교사(미주창조과학선교회 회장).

▲문의: (714)891-2029

### 웨스트힐장로교회 간증 집회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는 간증과 함께 하는 ‘별이 빛나는 금요일밤에’ 집회를 6월8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박성규 목사(케냐선교사).

▲문의: (818)884-2391

### 한기홍 목사 출판기념감사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의 저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출판기념감사회가 9일(토) 오후 6시 친교실에서 열린다.

▲문의: (714)446-6200

### OC기독교전도연합회 연합족구대회

제 38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주최 연합족구대회가 6월 2일(토) 오전 9시 엘도라도 파크 테니스센터(2800 N Studebaker Rd, Long Beach)에서 열린다.

▲문의: (562)972-9595

### 지저스키즈 세미나

지저스키즈(대표 에스더임 전도사) 세미나가 6월 9일(토) 오후 12시30분부터 4시까지 홀러튼 장로교회(담임 노인길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찬양지도, 설교와 성경공부지도, 크래프트, 전문적인 어린이 교회학교 행사와 PTA운영에 대해 강의가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는 자들은 kidz0191@gmail.com로 연락해야 한다.

▲문의: (213)422-0022

### <9면에서 계속>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LA시 선거구는 25일 이해당사자란에 자신의 집 주소를 적어도 무방하다고 새 방침을 밝혔다. 투표 용지는 현장 투표가 시작되는 6월 19일까지 LA시 선거구에 도착해야 한다. 한인회는 무료로 우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만 16세 이상이면 유권자

등록을 미리 하지 않더라도 투표장에서 바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는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버드 초등학교(330 N Harvard Blvd LA)와 파운터스 처치 오브 릴리저스 사이언스(3281 W. 6th Street LA)에서 이뤄진다.

24일 기준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 수의 한인과 방글라데시인을 더해 8,843명이다. 이중 2029년이 승인됐고 서류 잘못 등으로 1045건이 보류된 상태다. 투표자의 서류가 문제가 있을 경우 LA시 선거구에서 전화를 한다. 인종 간 우편등록 유권자 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박준호 기자)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이 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방문하여 주민의회로 분할하려는 구획안의 우편투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힐링, 섬김, 말씀” 주제로 교육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합평교육원 2기 수료식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총장 존 웰스 박사) 합평교육원 2기 수료식이 21일 본교 경영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려 총 38명의 목회자가 수료증을 받았다.

합평교육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남 목사(석성교회)는 “합평교육원 2기 교육을 통해 목회사역에서 섬김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형순 목사(백수중앙교회)는 “APU 박성민 부총장은 저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분이요 고강도 경상도인분인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보여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며 “다만 좀 더 배움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석윤 목사(광주사목교회)는 “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원하는 목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로 전환이 됐다”며 “APU의 교훈인 ‘하나님 먼저(God First)’를 마음에 새기게 됐으며 사역현장에서 목회자가 먼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배웠다”고 말했다.

APU합평교육원 2기는 지난 2016년 봄에 시작됐으며 힐링, 섬김, 말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수료식은 박성민 부총장 사회로 시작됐으며 데이빗비스비 본교 수석부총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 담임)가 격려사를 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제4차 차드 비전트립 파송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총 7명...우물파기, 각종 물품 준비 소망소사이어티 제4차 차드 비전트립 파송예배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5월 28일부터 10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될 제 4차 아프리카 차드 비전트립을 위한 파송예배를 5월 24일 오전 10시30분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가졌다.

총 7명의 참가자 중 뉴욕 참가자인 김민영 간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할 참석자들이 파송하는 예배를 위해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가 기도,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롯의 결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백장용 목사(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가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단장으로 수고할 정영길 목사가 차드 지역 및 일정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유분자 이사장이 참가자들을 각각 소개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석해 모든 이들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비전트립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차드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비전 트립을 위해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우물을 포함, 차드에서 필요할 물품인 쌀 150포, T-셔츠 300벌, 램프 3대를 비롯해 설판, 선글라스, 의약품 등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차드 지부의 역점사업인 가정 결연 사업의 결연자들은 결연 가정들을 위해 특별 메시지 영상을 준비한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어린이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후 8: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5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0:00 영양예배: 오후 7:30 새 계기 대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0:00 영양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전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dkc.org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새 계기 대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	<b>디아스포라교회</b>  대표 : 김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없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계기 대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m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cc.org	<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성경연구(목요일) 오전 10:00 성령세례(목요일) 오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다문화)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웨스턴교회</b>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저녁 7:30 금요일 예배: 새벽 5: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 김승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계기 대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오전 6:00(토) 토요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한국교회: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회: 365일 22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 계기 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순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 계기 기도: 오전 5:5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8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5:30(월-토) www.cornestone.org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b>토렌스노인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기독교인 미혼남녀 10명 중 7명 “결혼할 거예요”

### 크리스천 미혼남녀 비혼(非婚)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창 2:18-24).

하나님은 ‘가정’도 처음 만드셨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룬 것을 보시고 안식하셨다. 이처럼 가정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다. 미혼 크리스천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당당히 응답했다.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은 “그렇다”고 밝혔다. 한 명 정도만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혼(非婚)을 택했다. 자발적 비혼주의자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서 미혼 크리스천들의 선택은 인구절벽으로 향하는 위기의 한국사회에 희망의 신호가 됐다.

국민일보와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크리스천 미혼남녀의 비혼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를 공동 기획했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크리스천 미혼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미혼 크리스천들 “비혼 아닌 결혼”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56.2%가 이렇게 답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라고 응답한 이들은 37.7%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은 선택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앞으로 결혼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68.2%가 “결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6.4%만이 비혼, 즉 “결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고민 중”이라는 응답은 25.4%였다. 고민하는 이들에게 고려한다면 크리스천 미혼남녀의 결혼계획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지난 4월 잡코리아와 알바

몬이 일반인 미혼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설문에선 10명 중 3명인 33.3%만이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선 설문에서 미혼 크리스천의 절반 정도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결혼계획에 있어선 비혼이 아닌 결혼하는 쪽을 택했다. 하이패밀리 송예찬 책임연구원은 “미혼 크리스천들의 결혼관이 비록 세속적 가치에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결혼계획이라는 당면과제 앞에선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기독교적 가치를 따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결론은 결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서”(38.2%) “하나님의 창조설

계이기 때문”(31.4%) “가족이라는 버팀목이 생길 것 같아서”(20.9%) 결혼할 것이라고 했다.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7.7%)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1.2%)이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사랑이라는 결혼동기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창조설계’라는 성경적 가치를 특히 존중했다.

비혼주의자를 위한 교회적 돌봄 필요

반대로 비혼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되풀이하기 싫어서”(2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현재 생활에 만족해서”(25.4%) “너적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9.4%) “나와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어서”(7.5%)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이나 육아, 고부관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 크리스천 미혼자들도 “육아 등 결혼 이후의 삶이 힘들어서”(7.5%) “집 마련 등 결혼준비에 대한 어려움”(1.5%)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롤 모델 부재를 지적했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 가치관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행복한 결혼생활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비혼주의자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크리스천 미혼남녀의 절반 정도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는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

바뀔 수 있다”(45.5%) “매우 바뀔 수 있다”(9.6%)고 응답했다. “가능성 없다”는 10.8%였다. 비혼을 선택한 요소를 제거한다면 결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53.8%) “본인이 결혼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22.7%)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6.5%)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족이 그리우면”(4.7%)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비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비혼주의자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외로움이나 소외감, 우울감 등 심리·정서적 문제”(43.3%) “부모 사후 가족이 홀로 남게 되는 것”(23.0%) 등 감정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후대책”(8.2%) “사회적 편견”(8.0%) “건강상실”(5.3%) “경제적 어려움”(4.4%) 순이었다.

비혼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정된 직장고 고정적인 수입”(37.8%) “하나님과의 관계”(18.0%) “취미생활을 나눌 수 있는 동성 및 이성친구”(16.5%) “생활을 풍요롭게 할 취미생활”(14.2%) “철저한 건강관리”(7.1%) 등이라고 했다.

송 책임연구원은 “교회는 앞으로 비혼을 선택한 이들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외로움이나 두려움, 우울감 같은 정서적 부분에 대한 감정적 돌봄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땅끝 전도’ 열정을 되살렸다

### 순복음선교회 ‘세계선교의 날’ 61개국 691명 선교사 초청

순복음선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44회 순복음 세계선교의 날”을 개최하고 61개국에 파송한 691명의 선교사를 격려했다.

선교회 총재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오종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는 순수복음”이라며 “선교사역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심자가 소망을 제시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지에서 성령충만으로 무장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선교 일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목사도 “여의도순복음교회 60년 역사는 저주와 절망을 싸워 이긴 성령충만, 절대공정의 역사”라면서 “선교사들도 각 선교지에서 성령충만, 예수님 제1주의, 말씀충만의 신앙을 전파할 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선교사들은 각국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다. 일본 이치하라에서 온 김성규(54) 선교사는 “교회가 1970년대 일본에 뿌린 열

대공정의 꿈과 비전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면서 “일본인들이 신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과정은 더뎠지만 복음의 열매만큼은 순식간에 맺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간다 전통의상을 입은 오남석(56·여) 선교사도 “미지의 땅에서 고난도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선교보고에서 우창희 일본선교사는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이 0.4%에 불과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이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현재 78개 순복음교회에서 129명이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선교가 1세대 선교에서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1.5세대, 2세대 선교사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절대공정의 심자가 메시지로 일본인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1975년 설립된 선교회는 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UBF)에 이어 국내 2위의 선교사 파송단체다. 매년 파송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해 양복 항공편과 숙식비 일체를 제공하고 있다.

## 24시간 쉬 없는 기도, 40일간 타오른다

### 통일 위한 40일 예배와 기도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길 기다려... 통일을 그의 뜻 이뤄지길 기다려~.”

26일 새벽 1시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 제주 열방대 예배학교 찬양팀의 ‘주님의 시간에(In His time)’ 찬송이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자 30여명의 기도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 2명은 부직포 길레로 바닥을 닦는 데 바빴다. 방송용 앰프 앞엔 과일과 마키를 위해 선풍기까지 틀어 놔다. 지난달 29일부터 하루 24시간, 28일째 계속되고 있는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 현장이다.

국내의 다수의 기도자와 교회 예배팀이 찬양과 기도를 인도한다. 지정부터 그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씩 릴레이 형식이다. 25일만 하더라도 제주 열방대와 통일비전팀, 아산소망교회, 통일소망교회, 홍강홍 황보연 조연주씨 등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과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2014년 마크 조 목사(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DTS 학교장)가 ‘2018년 4월부터 40일간 한국으로 가서 주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됐다. 조 목사는 “처음엔 4년 뒤 한국에 가서 40일간 기도하라는 주님의 비전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니 모두들 미쳤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의 작은 교회, 기도자들을 일일이

찾아 기도회의 의미를 알렸다”면서 “기도회 시작 2일 전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고 기도회 마감 4일 뒤 북미 정상회담이 잡히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비전에 감동한 한동대 장순흥 총장과 학생 70명, 부산 호산나교회 성도 140명, 부산 수영로교회 성도 200명, 부산 연제로교회 성도 80명 등이 지난주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서울 은누리교회, 다윗의방막, 더 크로스처치, 에스티 탈북센터 등도 기도회를 인도한다.

인도 생명의강교회 폴 마하난디아(56) 목사는 “기도회에 와보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신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 이 나라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왔다는 김혜원(50·여)씨는 “브라질에서 이따가 미키를 잡고 찬양과 기도를 인도한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의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해 모였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감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한반도정세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회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이날 밤 2차 남북정상회담 소식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백악관 사전준비팀이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라는 뉴스도 났다. 기도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열린다.

## “모든 가치 변하는 ‘문명혁명’ 도래...”

### 신촌포럼, 첨단기술 변혁 시대 한국교회 방향 논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상 속으로 의미한다”면서 “수많은 성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국가인권정책에 반영되면 동성애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김원평 부산대 교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성평등’이란 단어는 양성평등과 다른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면서 “수많은 성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국가인권정책에 반영되면 동성애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를 판단한다는 건 무의미하다”며 “다만 지금 사회는 3가지 변화상을 중심으로 변해 간다”면서 이를 메가

트렌드라고 규정했다. 김 총장은 ‘장수혁명’과 ‘네트워크의 강화’, ‘AI의 발달’이 시대를 이끄는 메가트렌드가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로 20살에 입학한 학생이 100살까지 살 때 필요한 학문을 교육하지는 취지로 교육계획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교회도 100세 시대와 AI 기술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문명혁명’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I가 설교자로 나서는데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AI의 ‘공감능력’ 부족이 그가 꼽은 이유였다.

신 교수는 “AI가 어떤 방향이나 모습으로 변화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려운 만큼 지금의 교회는 신기술과의 접점을 넓혀가면서도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제15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 설동욱 목사, 이강평 총장, 김용철 선교사 수상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인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이 2018년 5월 24일 (목) 오전 11시 그랜드멤버서터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당회장), 교육자부문 이강평 총장(서울기독대학교 총장), 선교사부문 김용철 선교사(브라질 순복음빅토리아교회).

이날 시상식은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의 사회, 사무총장 김창근 목사가 기도했다. 설교는 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 성을 쌓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은 내 업적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운영위원장 배진기 목사의 기립사, 이사장 안준배 목사의 선정보고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시상상은 목회자, 교육자, 선교사 3개부

문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메달, 상금 200만원을 시상했다.

시상 순서 이후 수상소감에 이어 명예이사 정인찬 목사, 법인이사 장항희 목사, 성령세계2020 뉴욕지회장 이만호 목사의 축사와 소프라노 김은정 교수의 축가, 삼일회장 이호선 목사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목회자부문 수상자 설동욱 목사는 예정교회를 개척하고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부흥사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 목회자 가정을 위한 사역으로 목회자사모세미나, 목회자자녀세미나, 목회자사모비서교육세미나, 목회자 부부금식기도대회,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목회자자녀교육연구원장, 가정사역으로는 가정행복치유세미나로 섬기고 있다.

교육자부문 수상자 이강평 총장은 교육행정경력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처장, 한양대학교 체육대



제15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부부들과 주최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학 학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독교적 교육행정으로 대학발전을 이뤘다. 또한 1990년부터 2010년, 다시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서울기독대학교의 환원 설립이념을 대한민국 교육계와 국제적 교육분야로 확산했다.

선교사부문 수상자 김용철 브라질 선교사는 1984년부터 4년간 아마존 남쪽 마도그레소 미란다 지역에서 인디언 선교를 담당해 교회와

성전 두 곳을 건축했다. 1988년 8월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에스빠루투 정으로 대학발전을 이뤘다. 또한 1990년부터 2010년, 다시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서울기독대학교의 환원 설립이념을 대한민국 교육계와 국제적 교육분야로 확산했다.

선교사부문 수상자 김용철 브라

질 선교사는 1984년부터 4년간 아마존 남쪽 마도그레소 미란다 지역에서 인디언 선교를 담당해 교회와

## 국민 66.8%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 교회언론회, 19세 이상 남녀 1017명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약 70%는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6.8%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은 26.6%였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찬성이 73.4%로 반대(21.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대하지만 병역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도입 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종교전향 의향에 대해서는 77.1%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9~29세 응답자 중 21.1%가 ‘종교전향 의향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만석 한국교회언론회 대표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지만 병역 기피자에게 차라리 다른 일을 시켜서라도 책임지도록 하자는 동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이 확산되기 때문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0.4%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에이즈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가 69.4%로 가장 많았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3.4%였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보다 15.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김봉준 공동대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다수가 대한민국 정부를 사탄으로 보는 여와외의증인 신도”라면서 “이처럼 잘못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양심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무선

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베리타스 포럼(Veritas Forum)’이 열렸다. 세계적인 기독교 운동으로 자리 잡은 베리타스 포럼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자리였다.

베리타스 포럼은 진리, 과학, 윤리, 기독교세계관, 대중문화 등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국제 포럼이다. 1992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시작된 이래 북미와

유럽 대학 200여곳에서 2000차례 이상 진행됐다.

‘포스트 진리 시대에서의 진리’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 행사엔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00여명은 외부에서 온 직장인 대학생 성도 등이었다. 포럼 주 강사는 세계적 인물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사회학자인 오스기니(74) 박사.

그는 진리가 없으면 자유도 누릴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우리가 자유롭게 위해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 ‘포스트진리시대의 진리’ 주제 국내 첫 베리타스 포럼 열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목표와 이유를 이미 정하셨나요?”(20대 여대생) “성경적 관점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죠. 힌두교 불교 무신론 등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오스기니 박사).

23일 저녁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

# 선교의 창 (102)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무대(Stage)에서 거리(Street)로 나가는 선교

6월은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는 달이다. 들판의 보리는 제 철인 양 무리의 야가게 되어 있다. 이제 북반구는 여름의 기운에 접어들게 된다. 자연의 변화는 참으로 신비롭다. 철따라 옷 갈아입으며 때가 되면 탐스런 열매를 맺는다. 녹색식물은 하늘의 태양 에너지와 땅의 수분을 취하고 바람을 맞으며 엄청난 생명운동을 한다. 저 조그맣게 속의 운행하는 질서와 힘을 누가 꺾을 수 있었는가?

우리 선교도 대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반계시의 교훈을 체득하면 한층 나아질 것이다. 그것은 정중동의 자세로

위해 친히 사마리아 땅 수가라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다. 그것도 태양의 열기가 제일 센 오후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로서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 그녀를 데려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교통수단이 없이 모래사막 길을 친히 내딛으셨다.

이러한 행적이 어디 사마리아 땅 뿐이었겠는가? 주님은 왜 대궐 같은 장소(Center)에 거하시지 않고 낮고 천한 이들을 찾아 다니셨을까? 이는 자신이 사랑의 화신으로서 본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한 사역의 본으로서 선

려의 고색창연한 성당들이 바로 호화스런 무대를 만든 것이다. 이제 선교의 패턴이 사도가 세상으로 가기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무대 중심으로 불러 모은 것이다. 그 곳에는 크리스텐덤식 계급 구별이 있었다. 교황과 사제들은 화려한 묘자에 망토를 걸쳤고 성경을 소유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말쑥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니 하나님의 선교도 멈추다시피 했다. 간신히 성령의 촛대가 수도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

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교회를 이식했으며, 경직된 구조로서 기관화된 교회를 현장에 심고 교회 구성원을 성직과 비 성직으로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성직자가 없으면 평신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의존적, 수동적인 비선교적 교회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 4. 한인 선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는 선교가 바람직하다. "황소도 비발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선교사가 장기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조기지가 있어야 한다. 그 곳을 중심으로 구심적 선교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것은 원심적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IVF 한국 총무를 역임한 송인규 목사는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고 책을 저술했다. 그는 본서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처이며 선교지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진 교회로서의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계"하였다.

아무튼 앞으로 한인 선교는 사도행전적 선교운동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흩어지기 위한 교회(Scattering focus Church)로서 사명을 포기한 채 모이기 위한 교회(Gathering focus Church)가 목적이 될 때 그 사역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피내지 않는 우물은 썩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다.

### 맺음 말

선교는 성경의 원리에 기초를 두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결코 세속의 문화나 인간적 탐심에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경이 언급한 선교는 제도권의 무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선교지지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은 보내기 위한 전제가 달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닐 때 선교는 생명력을 잃고 안주하며 타락의 길로 가기 쉽다.

초대 카타콤 교회와 중세 교회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형을 따라 세상 한 복판으로 나가야 한다. 사본적인 신학보다 순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과 내 마음 속에 늘 살아 있는 양심"이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양심이 별처럼 티 없이 빛나야 한다. 이는 선교사가 가는(Go)쪽에 방점이 있다는 의미다.

jrsong007@hanmail.net



##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과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살롬! 개인과 가정, 교회, 일터와, 조국과 선교지에 평안을 빕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장미가 피기 때문이라고 하지도. 헝가리에서는 "성령강림절 장미"라는 이름의 꽃이 피는데, 바로 모란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 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선교지이다.

저희 부부가 올해 들어 매일 저녁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을 끝내고 누가복음에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헝가리어 성경을 읽습니다. 함께 통독하던 헝가리인들이 끝까지 못해 안타깝지만, 또 기도하는 제가 성전예배 기도하고 오면 저희 부부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Walking Prayer 합니다.

사진과 함께 선교사든, 선교지든...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첫 번째 줄 사진(위에서 아래로), 저희 부부입니다. 어머니 주일에 꽃을 받았습니. 예복은 선디 선생님님이 입양한 아이며, 발마는 길가에 핀 붓꽃을 꺾어와 주네요. 하하하!

2) 두 번째 줄 사진은,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예배 후 활동시간에 작품을 만듭니다. 칼빈, 르 카프도르, 졸탄, 마르틴, 탈라, 예쉬미, 멜린다, 크리타, 재클린, 나오미, 그 외에도 브리기, 도리, 비비안, 필라, 르카프도르, 비앙카, 마리오, 제시카, 베로니카, 도미니카, 웨비, 아미, 졸탄, 마르코, 크리스토퍼, 선디, 다비드, 클라우디아, 비키, 키쉬 레티, 가비, 아담, 부다이 멜린다, 가끔씩 기차 타고 오는 헨니, 비키, 야스민, 김가...

3) 세 번째 줄 사진은 "회신 집시 슬럼가" 사역입니다.

5월 7일-12일, 독일의 한인교회에서 단기선교 팀(6명)이 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유학생들이라 어려운 가운데 와서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4) 네 번째 줄 사진은 '허타르 역' 다리 밑, '거리의 교회'(월) 사역입니다. 최근 그 주변이 다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저희가 설 자리를 잃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남부역 거리의 교회'는 여전히, 예배와 급식, 이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 맨 오른쪽 줄 사진은 "콤포렉스 학교" 사역과 저희 "도요 영어학교" 모습입니다. 1991년, 하나님께서 저희를 헝가리 선교사로 파송하시어, "헝가리 대학생" 사역을 하게 하셨다가, 2004년부터, "거리의 교회"로 노숙자들을 위한 영육간 급식 사역을 하게 하시어 지금에 이릅니다. 2012년 4월 15일, "집시 슬럼가 사역"이 시작되어 현재 7년째 집시사정과 어린이 사역에 집중합니다.

집시 가정의 어린이들이 "콤포렉스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갔더니, 거기엔 "요셉 아틸라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또 여럿 있었고, 그곳에는 침대들이 많아 마약하다 소년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또 소년원 방문도 하게 된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 성경에 제시된 선교 형태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방점이 있다.

### 작금의 개신교회 사역은 사람들을 센터로 불러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 복음은 귀족적 무대보다 세상 한 복판에서 터뜨릴 때 그 생명력이 드러난다.

세상에 바람타지 않고 과묵하게 흘러 가야 함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선교는 너무 사람을 의식하며 땅의 소리에 귀가 예민해져 있다. 사역의 성공 모델도 세속의 영향을 받아 안락하고 화려한 무대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누가 큰 기지를 구축하고 깃발을 높이 달 것인가? 질박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씨름하다 몸 하나 누울 곳을 마련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세대는 유행을 탄다 해도 선교의 근본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식도, 신학도, 정보도, 환경도, 문화수준도, 교통수단도, 첨단 교육장비도 깊고 좋아져만 가는데 선교적 역량은 왜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는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 1. 성경이 제시하는 거리(Street)선교

길거리(Street) 선교란 인간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 바로 세상 한 복판으로 들어가라는 말이다. 주님은 결코 고색창연한 예배당이나 귀족적인 무대를 만들지 않으셨다. 선교현장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또 다른 계도가 아니라 바로 세상 한 복판이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소외당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교의 모형을 남기시기 위해서이다. 이 모델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보듯이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원초적인 선교유형은 초대교회 300년간이나 지속이 되고 끝내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 2. 무대(Stage) 중심의 사역 형태

무대(Stage) 선교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관계적인 사역을 대변한다. 이는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대제가 AD 313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324년에 로마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단독 황제가 되었다. 이후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의 비호의 아래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다. 기독교인들은 빼앗겼던 시민권을 되찾았고 물수당했던 교회의 재산을 돌려받은 많은 예배당을 세웠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감독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고 궁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이로서 교회는 성(聖)에서 속(俗)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갔다.

중세 1,000년의 역사를 가리켜 기독교계에서는 영적 암흑기라 부른다. 유

했을 뿐이다.

### 3. 한인 세계선교의 선교 모델

지난 반세기 동안 한인 세계선교는 Stage와 Street로 나누기보다 복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20세기까지는 개척에 초점을 두다보니 사람들에게로 나가는 선교가 주였다고 할 수 있다. 1세대 한인 선교사들은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역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21세기 이후에는 후배 선교사들이 1세대 선교사들의 초청과 도움 속에서 다수가 팀워크로 사역에 합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히 사역적 기반이 센터나 개척 교회를 강화하게 되었고 덩달아 가는 선교보다 사람들을 불러오는 쪽으로 양태가 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임종표 선교사는 "지난 20년간 한인선교가 현지 형편과 상황에 맞는 토착적 교회 개척을 넘어 코리안텐덤식(Korean tendom), 크리스텐덤식(Christendom) 교회" 이식의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크리스텐덤식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분리시키는 문제를 내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선교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b>뉴욕사백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전 8:30 Tel: (917)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1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554 www.nygetsemane.org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비성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초대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5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b>퀸즈한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8AS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Í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홍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www.pcov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늘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99-8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www.nyanctin.com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선교본부 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전교회 교우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1, 2, 3층 대니얼 빌딩) Tel: (52)333-3507-4111 E-mail: hanj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KWMA 2018년 세계선교대회

중남미선교 정보 및 미래선교 전략적 방향(1)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GMS신학대학 학장)

들어가는 말

KWMA 2018년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세계선교 전략회의(NCOWE VII) "함께, 그날까지!"란 구호를 걸고 큰 마당을 마련하였다. 중남미지역 선교전략연구소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대회를 참석한다. 중남미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는 일부 선교학자들의 말과 함께 한국교회 선교영역이 식어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겹치니, 지역적으로 멀고 경비가 많이 드는 중남미 지역은 선교지원 교회도 줄고 선교사 지원자도 없어 아직까지 접촉하지 못한 미전도 족속은 엄두도 못 내고,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의 사역을 이어갈 선교사가 없어 난감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번 KWMA세계선교대회가 중남미 선교지와 한국교회 및 미국교회를 잇는 진정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KWMA가 중남미 선교지와 한국교회의 다리 역할을 하려면 중남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한인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남미 선교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중남미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 및 문화와 종교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중남미 선교의 과거와 현재를 간략히 알아보고 중남미선교 미래의 전략적인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함께, 그날까지"가려면 중남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필요

1) 중남미 역사 구분  
중남미 역사는 크게 5기로 나눌 수 있다. 고대문명시대, 식민시대, 후 식민지 시대, 군부통치시대, 민선으로 바뀐 현대시대로 나눌 수 있다.

△고대문명 시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전에 중남미에는 고대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크게 나누면

아즈텍(THE AZTECS)제국 - 14세기 중앙 멕시코 고원지대에 세워짐, 마야(THE MAYA)제국 - 4-8세기 유타칸 반도(남부 멕시코와 과테말라), 잉카(THE INCA)제국 - 15세기 안데스 지역에 세워짐.

그밖에 아마존 유역에 인디오 원주민을 비롯한 5-6백의 종족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식민시대(1492-1821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의 강대국들이 몰려와 신대륙을 침략하여 무력으로 식민화시켜 갔다. 큰 대륙을 점령한 유럽 국가들은 서구 유럽의 기술과 문명화를 시키며 교육을 통해 유럽의 언어를 익히게 하면서 복음화 운동을 펼쳐 나갔다. 한편으로는 고대 문명인 원주민 문화를 파괴하였고 원주민의 착취와 함께 피를 섞어 혼혈족인 미스quito가 유럽의 질병을 전염시켜 면역력이 약한 수백만 명의 원주민들이 죽었다.

△후 식민지시대의 Caudillo 시기(1824-1930년)

후 식민지(post-Colonial)시대라 명하는 이 시기는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Criollo(백인이지만 스페인어나 유럽이 아닌 신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 후예들 즉 신대륙에서 태어난 유럽 2세 및 3세대들이 섭정 또는 독재하면서 다스렸던 시기 Criollo들 까우디요 Caudillo, 영어로는 Strong men)들의 독재로 다스리는 시기이다. 멕시코의 San Ana, 알렌틴의 Juam Manuel de Rosa, 파라과이 Francia Carlos Antonio Lopez, 베네수엘라 Jose Antonio Paez 등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 모든 나라가 20세기 중반까지 독재자들의 통치를 받는 시기이다.

△군부 통치시대(1930년 이후 1980년대까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기를 군부 통치시대라 명하는데 1950

년대 냉전시대 쿠바공산혁명(1950년)로 무장한 군부가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갖추어 안보와 경제성장 구조개혁을 하므로 중남미 전 지역이 개발되고 풍요 속에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중앙집권적인 군부통치시대를 말한다.

△민선을 통한 현대시대(1980-현재)

중남미의 군사정부는 대체로 억압적, 배제적 구조 때문에 정당화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브라질의 기적"이 끝나면서 연이은 오일쇼크와 세계경제의 침체, 외채위기는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 군인들이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소위National Security Theory로 무장된 군인들이 병영으로 돌아가는 민선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때 가이젤(E.Geisel)과 피게레이두(J. Figueiredo)는 감압정책(decompressao)과 개방화(abertura)를 추진하였고 이로써 완만하지만 민주화로 이행하게 되어 브라질은 1985년 야당 후보 팅크레도 네비스(T.Neves)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부는 경제 위기로 증폭되는 민주화 요구를 말비나스 전쟁\*으로 완화시키려 했으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군부의 위신이 실추되었고 1983년 알폰신의 승리로 민주화가 이행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에 성공했던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도 남미 민주화의 도미노 현상으로 1990년 남미에서 가장 늦게 민선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말비나 전쟁은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자국과 가까운 포클랜드 섬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침공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2개월 만에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으로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갈티에리의 군사독재정권이 실각하게 된다.[필자주]

2) 중남미의 나라의 모든 지역은 선교영역

중남미 전체지역은 세 지역으로 구분한다. 라틴아메리카 구역국가, 중미국가, 서인도 제도 국가로 나눈다.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19개 나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오늘날에는 Belize(스페인어, 영어사용), Surinam(네델란드어 사용), Guyana(영어 사용), French Guiana(불어 사용), Falkland Islands(영어 사용)를 포함하여 24개 국으로 구성된다.

△중미(Central America) 국가는 전통적으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5개국을 말하였으나 오늘날은 파나마와 벨리제를 포함하여 7개국을 의미한다.

△서인도 제도(Caribbean 국가) 지역은 중미지역과 남미지역에서 제외되어서 카리브해 국가 군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어서 12개의 독립국가와 10개의 도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 지역 국가들이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호칭이 됨은 복음전파가 누락되지 않게 함과 그들 나라에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들(DIASPORA)과 그들의 자녀들, 유학생들, 상사 및 외교관 직원들 기타 방문객들을 통한 세계선교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남미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이민자 후손들과, 노예로 실려 온 후손들 모두가 깊은 상처와 함께 자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간직해오고 있기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선교사역을 할 선교영역을 알아야 한다.

Johston, Mandryk의 공저인 Operation World(2005년 6판)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 에(카리비안 해안) 국가를 합하여 46개국(25개 섬나라 포함)으로 표기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20,537,000sq Km(남한의 207배)으로서 이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5.1%에 해당된다.

kangsungchuel@gmail.com

KWMC 세계선교대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노봉린 박사  
(AGST-Pacific총장)

KIMNET 국제선교지도자 컨퍼런스(2018년 7월23일-24일)는 KWMC가 창설된 후 3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이다. 1988년 7월 제 1회 북미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휘튼칼리지(Wheaton College)에서 열렸다. 한국선교사 368명을 포함하여 1,500명이 참석하여 북미 한인교회 선교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선교대회가 열리기전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면 북미한인교회 선교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아내를 휘튼칼리지(Wheaton College)에서 만났고 1962년에 졸업하였다. 필자는 OMF선교사로 30년간 싱가포르(1970-74), 대만(1975-89), 한국(1990-2000)에서 신학교육 사역을 하였는데 매 4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휘튼(Wheaton)에서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휘튼칼리지에서 저에게 아시아선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네 번 안식년(1974-75, 1980-81, 1985-86, 1990-91)을 가졌을 때 휘튼칼리지에서 가르치면서 총장과 교수들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세 번째 안식년(1985-86)을 휘튼에서 가졌을 때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최일식 목사) 예배에 자주 참석하였다. 저는 최일식 목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북미한인교회 중심으로 휘튼칼리지에서 한인세계 선교대회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1986년의 한국교회는 614명 한국선교사를 47개국에 파송했고 80개 선교단체가 있었다. 한국교회는 열정적으로 선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교운동이 북미한인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였다.

그때 당시 Dr. James H. Kraakevik이 빌리그래함센터(Billy Graham Center) 디렉터였는데 그분은 필자가 휘튼칼리지 학생으로 있었을 때 물리학을 가르친 교수로, 외국인 학생들을 관리하는 수퍼바이저를 맡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후 필자가 안식년 세 번을 휘튼칼리지에서 보내면서 Dr. Kraakevik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또한 필자가 아세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총무로 20년(1970-90)간 사역했을 때 아시아의 여러 신학생들이 휘튼칼리지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들을 위한 추천서를 Dr. Kraakevik에게 쓰기도 했다.

최일식 목사와 필자는 같이 Dr. Kraakevik를 찾아 갔었다. 우리는 먼저 그에게 북미한인교회 선교대회의 필요성과 선교대회 운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선교대회를 휘튼칼리지와 빌리그래함센터에서 거행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체비용의 절반은 한인교회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반은 빌리그래함센터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대답은 빌리그래함센터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약 2주 후에 그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되었다.

1986년 여름에 저는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고 그 후 최일식 목사가 2년간 1988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1987년 한국의 합동신학교 교회사교수이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로 사역하던 김명혁 박사가 휘튼에서 안식년을 갖게 되었을 때 최일식 목사가 김 박사에게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첫 1988 한인선교대회를 한국교회에 널리 알리고 참석하도록 요청하였다. 김명혁 박사의 역할로 많은 한국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이 첫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최일식 목사는 시카고지역의 한인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또한 타 지역의 한인 목회자들과 같이 협조하여 1988년 7월에 첫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다. 이 선교대회에서 KWMC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 그 후 제 2회 선교대회로부터 8회까지의 KWMC세계선교대회는 뉴욕의 고석희 목사가 책임자로, 매 4년마다 KWMC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하였다. 매년 거의 4,000명의 참석자가 참여하여 선교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수천 명의 북미한인선교사들이 배출되었다. 고석희 목사는 KWMC운동을 계속 확장시키고 북미한인교회 선교운동을 강화시켰다.

KWMC운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rohonolulu@gmail.com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현수막

성탄 축하예배

송구영신예배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3)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변화하는 세계 속의 성경적 절대성

오늘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 기독교영... 유물론, 상대주의, 회의주의 그리고 실용주의와 같은 현대 세속적인 철학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실제에 중심부에 두고 있다.

가르친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상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준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나 상황들은 하나님의 명령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를 개발하고 상쇄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석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제한된 지식을 잘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야만 한다.

성경의 절대성에 의거해 기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하나님 주신 절대적 도덕적 원칙으로 모든 가치 결정해야

장한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 우리는 분석과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지적 구조나 이성적 논쟁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해석하였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진실병의 신성화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결코 배고픈 자를 돌보는 일 앞에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원칙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 원칙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적용은 상황에 적합하도록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기업의 의사 결정에서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해석한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하고, 진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절대적 원칙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바른 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 비록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용 방법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은 상대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덕적 원칙을 주셨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생생한 것이다.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삼하 24:19-24)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잠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것을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 번제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24절). 번제는 자원해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희생제사인데 값을 지불하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가로 막았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라(삼하24:23-25)

아리우나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모두 마치면서 참고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번제와 화물제를 드린 곳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번제와 화물제로 재앙은 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장소입니다. 예배중심 교회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왕상1:1)

지난 2년여 동안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부터 찬란한 왕정40년을 같이 감격하며 같이 안타까워하며 또한 같이 감동과 기쁨을 느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 이후로 11장까지 솔로몬의 화려한 왕정시대가 펼쳐 집니다. 특별히 본문은 다윗의 시대가 서서히 마감돼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오기 직전에 벌

어지는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금방 떠나야 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웅장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 이블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왕상1:1)

오늘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온 한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웅장스러운 장군이요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왕이 나이 많아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던 다윗이 지금은 몸을 아무리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따뜻해지지 않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과 젊음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 들어 죽음 앞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 것입니다.

금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왕상1:2-4)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옛날 젊었을 때 우리의 아내를 범한 후에 나단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여인을 범하지 않겠다고 통회 자복하는 내용이 시편 51편과 성경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돌아온 다

윗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신들이 데려온 동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 다.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밤새바를 아나로 맞이한 이후로 다른 여인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토 내가 왕이 되리라(왕상1:5-8)

본문을 보면 다윗의 넷째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왕이 노쇠해 누어있을 때 다윗의 최고 사령부인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을 포섭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반역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 암살범이 반역을 해서 요압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요압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약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높이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울도 망했고 암살로도 망했습니다. 성도는 늘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Kumran, Ddunhan, Roman, Saeiden, Seungmun, Seungsil, Seungil, Sujeong, Seungdo, Siyeon, Singil, Shincheon, Shinchon, Anam, Yangok, Wangseong, Jangwi, Juangok, and Cheungju churches.

인/터/뷰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원중권 목사(아르헨티나 소망교회 담임)

“기독교 진리의 순수성과 유일성 수호하겠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43회 총회가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미니카 류 팔레스 바바로 호텔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원중권 목사(아르헨티나 소망교회 담임)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본지는 총회장 원중권 목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이끌어갈 총회에 대한 비전을 들었다.

원중권 목사에게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묻자, “부족한 자가 교단 총회장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전15:10)고 고백했듯이,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한 일, 그 이전 한국에서 약 15년 군목으로 사역한 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또한 목회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소망 교회의 은혜가 큼니다. 그리고 중남미 노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부족하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고 거듭 감사를 표하며 기자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 주었다.

-신임 총회장으로서 총회소개와 함께 1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갈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단의 목적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기에, 협력하는 교단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KPCA 총회는 1976년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확장되어 교단 명칭도 해외한인 장로회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교단입니다.

△본인은 총회장으로써 첫째, 다원화 시대에 기독교 진리의 순수성과 유일성을 수호하며 둘째,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실현하고 셋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한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과 넷째, 세계에 산재한 한



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나의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회자의 자세로 이민 목회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D.min)를 마쳤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1982년 대한민국 육군 군목으로 14년 사역하였고(육군소령 예편), 1996년 PCK(예장통합) 파송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갔으며, 지금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20년째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김인숙 사모(성신여대 음악대학 졸업)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습니다. 딸(지선)은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동대학교에서 유학하고, 현재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대로)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소망교회는 고 박만성 장로의 주도로 1983년 11월에 창립된 교회로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다. 예배당 외에도 선교관이 있어, 외국에서 방문하는 선교사, 목회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 청소년을 위해서 2018년 4월에 청소년 체육관 “브니엘센터”를 개관해 2세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소망교회 성도들은 말씀 훈련으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며, 성도의 선한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지인 선교 사역은 STEPS(Seminario teologico Pastors Somang)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STEPS는 4년 과정의

세계 선교와 봉사, 차세대 한인 리더십 배양에 주력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 교회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세로 목회

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와 세계 봉사를 하고 다섯째, 한국 교회의 경건 신앙을 통해 차세대 한인 리더십 배양 등 총회의 비전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교단 내에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일에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며, 격려, 위로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총회장님께서 평소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전15:10)입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둘째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하

-간단한 이력(신력)과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복에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오신 부모님(부: 고 원웅진 장로: 평북 구성, 모: 고 노선영 권사: 평북 선천)의 3남 중 2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와 신대원(M.Div)을 졸업하였고, 후에 장신대 세계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Th.M),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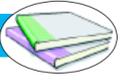
현지인 목회자 재훈련 프로그램으로, 현재 3개 주(Provincia) 60가정의 목회자 부부가 졸업했고, 15가정이 훈련 중에 있다.

또한 구제사역도 이어지고 있어 구청과 협력해 인근의 어려운 현지인 가정 50가정을 매달 돕고 있다.

그 밖에도 청년 단기 선교, 협력 선교 및 북한을 위한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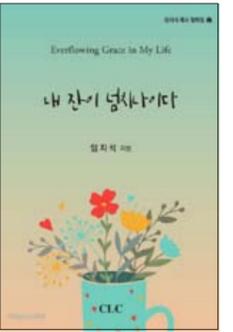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자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지석 목사가 칼럼집 '내 잔이 넘치나이다'(기독교문서선교회)를 출간했다. 이민사회의 목회현장에서 접하며 느꼈던 다양한 주제들을 진솔하게 수록한 저자는 “이 은혜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고 싶은 소원을 담고 출간했다”고 말한다.

200여 페이지로 구성된 본서에는 '새해에 가는 기대', '종기 규제에 얽힌 미국의 두 얼굴', '창조와 기적', '하나님을 안다는 것' 등 총 102편의



목회현장에서 접하며 느꼈던 다양한 주제, 진솔하게 담아

칼럼이 수록돼 있다.

“홍익 범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만 계속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이제는 다소 자유를 구속받는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종기 규제에 얽힌 미국의 두 얼굴’ 중에서). 이처럼 각 글마다 미국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주제를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고 적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나성세계로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는 임지석 목사는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도미, UC 리버사이드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재정 서비스(Financial Service) 분야에서 사업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그레이스신학교(Gra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얀마, 필리핀, 인도, 태국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본서에 관한 문의는 (213)219-9229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3면에서 계속>

고아원에는 18살이 되면 나가야 해서,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싱글맘 시설에 가니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 저희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도제목은, 집시공동체가 헝가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 신뢰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 선교사의 사역이 헝가리 기독교 역사에 한 조그만 영향력으로 기록되고, 저희 부부 같은

선교사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감사드리며,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제47회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총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총회장 원 영 호 목사(미국 새장로교회)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For Such a Time as This

